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曹 点 煥

初等學校 特技・適性教育 運營實態와
改善点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Operational Realities of Speciality/Aptitude
Education Activity in Elementary School and Its Improvement

2002 年 8 月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 育 行 政 學 科

教 育 行 政 專 攻

池 清 煥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曹 点 煥

初等學校 特技・適性教育 運營實態와
改善점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Operational Realities of Speciality/Aptitude
Education Activity in Elementary School and Its Improvement

위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2 年 8 月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 育 行 政 學 科
教 育 行 政 專 攻
池 清 煥

池清煥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2 년 8 월

審査 委員長

印

審査 委員

印

審査 委員

印

目 次

I. 緒 論	1
1. 研究의 必要性	1
2. 研究의 目的	3
3. 研究의 內容	3
4. 研究의 方法	3
5. 研究의 制限點	5
6. 用語의 定義	5
II. 理論的 背景	6
1. 特技・適性教育의 意義	6
2. 特技・適性教育의 目的	11
3. 特技・適性教育의 內容	14
4. 特技・適性教育의 運營 指針	17
5. 特技・適性教育 運營 現況	26
6. 外國의 特技・適性教育	32
7. 先行研究 考察	45

Ⅲ. 結果分析 및 解釋	48
1. 特技・適性教育에 대한 認識	48
2. 特技・適性教育 프로그램 運營實態	54
3. 特技・適性教育 行政支援實態	59
4. 特技・適性教育 講師 運營實態	65
Ⅳ. 要約, 結論 및 提言	67
1. 要約	67
2. 結論	69
3. 提言	70
參考文獻	71
Abstract	73
附錄	77

表 目 次

<표 1> 설문지 응답자의 배경 변인별 분포	3
<표 2> 설문지 문항의 구성내용	4
<표 3> 특기·적성 교육활동 실시 학교 수	27
<표 4> 특기·적성 교육활동 참여 학생 수	27
<표 5> 실시 프로그램 종류	28
<표 6>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	28
<표 7> 인근학교 협력 프로그램 운영	29
<표 8> 인근학교 협력 대표적인 프로그램	29
<표 9> 교육청 주관 운영 프로그램	29
<표 10> 교육청 주관 대표적인 프로그램	30
<표 11> 강사 현황	30
<표 12> 강사료 시간당 평균 지급현황	31
<표 13> 학생 1인당 월 평균 부담액	31
<표 14> 특기·적성교육의 필요성	48
<표 15> 특기·적성교육이 필요한 까닭	49
<표 16> 특기·적성교육의 교구·시설 구비	50

<표 17> 특기·적성교육의 지도내용과 방법	51
<표 18> 특기·적성교육의 도움 여부	52
<표 19> 특기·적성교육의 사교육비 경감 여부	53
<표 20> 특기·적성교육의 적정 수강인원	54
<표 21> 특기·적성교육의 주당 적정 수업시수	55
<표 22> 특기·적성교육의 반 편성	56
<표 23> 특기·적성교육의 방학중 실시 여부	57
<표 24> 특기·적성교육의 인접시설 활용	58
<표 25> 특기·적성교육의 현직교사 강사료	59
<표 26> 특기·적성교육의 정부 보조금 사용	60
<표 27> 특기·적성교육 학교의 역할	61
<표 28> 특기·적성교육의 업무담당	62
<표 29> 특기·적성교육 업무처리에서 어려운 점	63
<표 30> 특기·적성교육의 개선점	64
<표 31> 특기·적성교육의 현직교사 참여 여부	65
<표 32> 특기·적성교육의 현직교사 참여 문제	66

I. 緒 論

1. 研究의 必要性

일부 소수 계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그들의 지적활동을 자극하던 옛날의 교육은 근대 이후 민주국가의 탄생과 더불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시키는 모습을 바라게 되었다. 전통적인 교육은 개성이 무시될 수 있는 획일적이며 통제적인 교육임에 비하여 오늘날 새로운 교육은 개성을 존중하고 신장·발달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경향도 마찬가지로 주입식 방법으로 일률적으로 교육하던 방법을 탈피하기 위하여 몇 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현대 교육 사조에 부합하는 전인 교육, 개성신장 교육, 도덕성 함양 교육을 목표로 삼고 특기·적성을 중시하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의 교육과정에서는 개성신장을 위한 교육과 전인교육 차원에서 특별활동과 재량활동 시간을 교과 시간 이외에 배당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일부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나 1992년에 잡부금 문제를 우려하여 금지하였던 특기교육을 다시 부활시켜 1994년부터 각 학교의 시설을 활용, 방과후 아동의 부족한 학습보완 위주의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어서 1995년에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내용 중의 하나로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활성화가 제시되었다.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활동은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개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현대 교육의 동향을 수용하면서 인지적 영역 위주인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의도로 실시된 것이다.

위의 필요성과 배경이 교육개혁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와는 달리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도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자료에 의하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980년의 40.0%, 1987년 41.9% 1993년 46.1%, 2001년 48.1%로 증가해 가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는 300~400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그 중 학

령기 아동을 가진 어머니의 직업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어 서울에 거주하는 전체 초등학생 975,800명의 1/3인 325,266명은 성인의 보호가 없이 방과후 시간을 지내야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시간은 5,6학년은 평균 7시간, 3,4학년은 평균 6시간, 1,2학년은 5시간 정도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며, 특히 저학년일수록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다.

그러므로 더 많은 시간을 성인의 보호가 없이 학생 혼자서 지내야 하는 것이다. 물론 부모는 수업 이외의 과외활동으로 이를 보완하여 주려고 노력하나 부모 혼자서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와 교육기관의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

1991년부터 국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1995년에 외국의 사례를 적용하여 공교육기관인 학교를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장으로 인식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게 되어 초등학교에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하였다. 이는 앞서 말한 배경과는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모두 공교육을 대상으로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시행하려 하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각급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은 낮은 수강료와 함께 학생들의 소질 계발과 특기신장, 진로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 활동에 대한 인식부족,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우수강사 확보 및 지원 관리, 기타 행정 지원, 학교 시설 및 인접 자원 활용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현장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수요자인 학부모, 학생의 다양한 교육 욕구 충족과 소질 계발에 대한 기대에 만족을 주지 못해 대부분 학교 밖에서 또 다른 과외 교육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의 사교육비 과다 지출은 학부모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아동간, 학부모간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고 계층간, 지역간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특기·적성교육 활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추출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2. 研究의 目的

본 연구는 학생들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 신장 교육의 기회 제공으로 인성 교육을 정착하고 학부모들의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며 학교의 시설 및 인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 활동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한 후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3. 研究의 內容

- 1)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운영 실태를 교사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문제점을 탐색한다.
- 2) 특기·적성교육 활동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4. 研究의 方法

1) 調査 對象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에 위치한 15개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350부 가운데 305부(회수율 87%)가 회수되었으며 분석에 이용된 응답자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지 응답자의 배경 변인별 분포

구 분	변 인	인 원(명)	백분율(%)
성 별	남	56	18.36
	여	249	81.64
직 위	교사	240	79.21
	부 장 교 사	63	20.79
교육 경력	5년 미만	60	19.67
	5년 이상	23	7.54
	10년 이상	99	32.46
	20년 이상	123	40.33

2) 調査 道具

본 연구를 위한 조사 도구는 선행 연구와 참고 문헌을 토대로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인식, 프로그램 운영, 행정 지원, 강사 운영에 대한 4개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영역별 문항구성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 문항의 구성내용

영역	설문내용	문항번호
1. 특기·적성교육 인식	◦ 필요성	1
	◦ 필요한 까닭	2
	◦ 교구·시설 구비	3
	◦ 지도내용과 방법	4
	◦ 도움 여부	5
	◦ 사교육비 경감여부	6
2.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적정 수강인원	7
	◦ 주당 적정 수업시수	8
	◦ 수준별 반 편성	9
	◦ 방학중 실시여부	10
	◦ 인접시설 활용	11
3. 특기·적성교육 행정 지원	◦ 현직교사 강사료	12
	◦ 정부 보조금 사용	13
	◦ 학교의 역할	14
	◦ 업무 담당	15
	◦ 업무 처리시 어려운 점	16
	◦ 개선점	17
4. 특기·적성교육 강사 운영	◦ 현직교사 참여 여부	18
	◦ 현직교사 참여시 걱정되는 점	19
5. 기 타	◦ 기타 의견	20

3) 資料 處理

회수된 설문지 자료는 통계처리를 위해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을 이용하여 교사의 각 배경변인별로 백분율과 χ^2 검증을 실시하였고 집단간의 차이는 $P<.05$, $P<.01$, $P<.001$ 수준에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5. 研究의 制限點

- 1) 연구의 조사 대상을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내 학교로 한정하였으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2) 이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표준화된 도구가 아니라 연구자가 선행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으므로 조사 자체의 객관도 타당도 신뢰도에는 제한이 있다.

6. 用語의 定義

· 특기·적성교육 활동 : 특기·적성교육 활동이라 함은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기르기 위해 희망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수석자 부담으로 별도의 강사를 채용하여 방과후에 실시하는 교수·학습활동을 말한다.¹⁾

1)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 활동 운영지침」, 서울특별시교육청, 2000, p.2.

Ⅱ. 理論的 背景

1. 特技・適性教育의 意義

1) 특기・적성교육의 의의

특별활동은 교과활동과 더불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한 교육활동으로 학교 교육활동의 3가지 영역 중 한 영역이다. 특기・적성교육은 학교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이룬 교육 성과를 얻기 위한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상의 특별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규 수업을 마친 이후 시간에 계속 되는 교육활동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추구하기 위한 활동으로서의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

특별활동 영역의 교육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특기・적성교육은 다음과 같은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김재복, 1990: 56)

첫째, 특기・적성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의 적성이나 소질을 발견하고 신장하는데 기여한다. 학생이 자신의 소질・적성을 발견하고 신장하도록 하는 일은 교육의 중요한 목표이며, 이러한 소질・적성은 개인차가 고려된 수업 상황, 자기 표현이 강조되고 자기 표현의 기회가 풍부하게 제공되는 상황 아래서 효율적으로 발견될 수 있다. 학생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강조하는 특기・적성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소질이나 흥미를 발견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학업 성적이 뒤떨어지는 학생에게 특기・적성교육 시간은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일 가능성이 크다. 특기・적성교육은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고 시험해보는 경험의 장으로서의 역할이다.

둘째, 특기・적성교육은 자유로운 집단활동을 통하여 협동심, 자주성, 책임감 등 민주시민의 자질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협동심, 자주성, 책임감 등은 읽거나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느낌으로써 배우는 덕목이며 아는 것을 지나 실천할 의지를 습득해야 한다. 특기・적성교육은 집단활동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계획하고 제안하며 함께 실천하고 평가하며 일의 성과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느끼는 과정을 통해 협동심, 자주성, 책임감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셋째, 특기·적성교육은 전인교육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학교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전인교육을 통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있다. 학교 교육과정의 궁극적 목표는 전인교육의 실현으로써 학생들이 지적으로 우수하면서도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감정적으로 풍부하면서도 인간미가 넘치는 조화로운 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기·적성교육은 이러한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개성이 보다 자유롭게 표현되고 그러한 개인들의 개성의 차이로써 나타나는 개인차가 오히려 장려되고 존중되어 개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로써 모든 학생들이 나름대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전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한다.

넷째, 특기·적성교육은 학생의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에 기여한다. 생활지도는 학생들이 개인으로써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써 활동하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특기·적성교육의 지도 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의 능력, 적성 등을 이해하는 자료를 얻게 되어 학생의 생활지도에 도움이 되며, 특기·적성교육 지도 과정에서 생활지도와 진로지도를 좀 더 근접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섯째, 특기·적성교육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과외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기존의 학교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소질·적성 교육이나 동아리 활동 등으로 교육활동 기회를 증대하면서 동시에 학부모들의 과다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 이는 과외 문제를 완화하고 공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여섯째, 특기·적성교육은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및 유관기관의 참여로 학교를 지역사회의 열린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다. 특기·적성교육에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를 자원봉사활동, 소질·적성 강사, 학부모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함으로써 폐쇄된 학교기관이 아니라 열린교육기관으로서의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2) 특기·적성교육의 성격

학생들의 집단활동을 특성으로 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의 기본적인 성격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유광찬, 1996:56)

첫째, 집단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활동함으로써 자주적, 실천적인 태도를 몸에 익히는 활동이다.

둘째, 교사와 학생 및 학생 상호간의 논의를 기초로 하는 활동이다.

셋째, 학생의 개성이나 능력의 신장, 협동심 등의 육성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넷째, 각 교과 학습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높이는 활동이다.

다섯째,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간성을 함양하는 활동이다.

특기·적성교육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경험의 총체로 보는 넓은 의미의 교육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의 교육과정은 교과교육, 특별활동, 재량활동의 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기·적성교육은 특별활동뿐만 아니라, 교과활동과 재량활동과도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편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의 성격을 이 제시한 특별활동의 성격에 근거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재복, 1990:64)

첫째, 특기·적성교육은 운영의 융통성을 갖고 있다. 특기·적성교육은 다른 학교 교육활동에 비해 운영이 훨씬 자유롭고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방과후 특별 활동은 활동내용이 고정된 것이기보다는 구성원과 그때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이 자유롭고 융통성이 많이 주어진 활동이다. 특기·적성교육의 운영시기와 장소, 운영방법 등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 할 수 있다.

둘째, 특기·적성교육은 학교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교과 활동과는 상호 보완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잠재적 교육과정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특별활동과 교과활동은 나름대로의 고유 목표와 기능이 있고, 이들이 합하여 보다 큰 전체로서의 교육목표달성에 기여한다. 이들 관계는 고유하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중복되어 서로가 서로를 보충하는 상호보완의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특기·적성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의 보충·심화 활동의 성격

을 띄고 있다.

셋째, 특기·적성교육은 실행과 체험을 전제로 하는 활동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기·적성교육은 다른 교육활동보다 정적인 측면보다는 대부분이 활동 중심이며, 직접적인 행동과 실천을 수반하여 전개된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한다면 봉사활동의 중요성, 방법을 공부한 후에 실제로 봉사활동을 전개하면서 느끼고 체험하는 활동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넷째, 특기·적성교육은 학교의 기능을 지역사회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게 하는 특성이 있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만이 모든 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학부모, 지역주민, 지역의 유관기관 인사가 공동으로 교육활동과 평생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특기·적성교육의 교육적 효과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통해 사회적, 학문적,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생활과 미래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을 얻고, 삶의 가치관 및 생활습관을 형성한다. 학교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을 얻고, 삶의 가치관 및 생활습관을 형성한다. 학교 생활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세 가지 인식과 학생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네 가지 능력을 획득한다. 이와 같은 학교 교육의 기능은 특기·적성교육을 통해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얻도록 해야 할 자신에 대한 세 가지 인식과 학생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네 가지 능력은 다음과 같다.

(1) '나'에 대한 세 가지 인식 능력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의 삶에는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자기 능력의 인식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자기 능력을 인식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학생들에

게 성공이나 실패,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해주기보다는, 시행착오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특기·적성교육은 자신이 선택한 활동을 주로 하므로 자신의 능력, 소질, 적성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② 기본 관계의 중요성 인식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기본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학생들은 그들의 감정, 생각, 사상 등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한 그것들이 친구들에 의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해야 한다.

③ 자기의 삶에 영향을 주는 자신에 대한 인식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 깨달을 수 있도록, 학생들은 책임과 격려가 강조되는 환경을 경험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선택한 방과후 활동을 책임 있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2)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네 가지 능력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 평생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다 수준 높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통제 능력, 대인관계 능력, 전략 세우기 능력, 의사결정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이와 같은 능력을 경험하고 성장시킬 수 있다.

① 자기통제 능력

특기·적성교육은 학생들의 자기통제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항상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며 친구들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는 경향이 있으며, 행동결과로부터 자신의 감정을 분리시키는 법을 배운다.

②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시키는 능력

특기·적성교육은 집단 활동이 중심이 되므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의사소통, 협력, 협상, 문제해결 등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며, 이를 통해 대인관계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달된다.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하는 특기·적성교육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유지와 교사와의 관계를 경험하여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③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능력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는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 세우기 능력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이 맡은 일을 처리함으로써 새로운 사태에 적응하게 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④ 의사결정 능력

특기·적성교육은 크고 작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따라서 특기·적성교육의 선택과 활동과정에서 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의사결정들은 학생들의 의사 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된다. 교사는 학생들의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에 대한 성공이나 실패보다도 그 활동의 과정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 학생 스스로 행한 선택에 대하여 격려 받을 때 의사결정 능력은 정착되고 향상된다.

2. 特技・適性教育의 目的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의 목적에 대해 이론적으로 명확히 정립된 것은 없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2000. 11) 학생의 소질·적성개발 및 보충·심화 교육의 기회 제공으로 인성교육 정착,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경감, 학교의 시설 및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 지역사회 교육 문화 센터로서의 역할을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의 목적이라고 제시하였다.

Hoffman은 구체적으로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은 다음 다섯 가

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술하였다.²⁾

첫째, 자기 존중(self-respect) 의식을 갖게 한다.

둘째, 아동 개개인의 능력을 계발시킨다.

셋째,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자라게 한다.

넷째, 친구들과 그리고 여러 활동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개별적 흥미를 추구할 기회를 갖게 한다.

한금숙은 이러한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의 목적으로³⁾

첫째, 학생들의 건전한 자아개념형성을 통한 바른 인성 정착

둘째, 학교 중심 교육과정의 실현 및 학습자의 사회적, 정서적, 지적
요구 충족

셋째, 저 비용의 교육으로 교육평등의 이상 실현

넷째, 자율적인 인간 형성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

효과적인 목적달성을 위한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의 내용은 학습에 중점을 두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사고와 체험을 할 수 있고 사회성발달을 위한 집단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정의한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의 목적, 개념에 의해 운영하는 초등학교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⁴⁾

정해진 교과과정을 모두 마친 후 학생의 바람직한 인성 함양 및 창의성 계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인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의 목적을 김선미는 현재의 초등학교 교육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미래의 인간상을 구현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아동의 교육, 여가선용, 자질향상에 두고 있다.⁵⁾ 또 아동의 개성, 인성, 창의성을 신장시키는데 중점을 둌으로써 신교육체제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려 하며,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학교중심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설계, 운영함으로써 학교중심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교육의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교육의 주도권과 자발성을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습

2) 한국여성개발원,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총론」, 서울교육과학사, 1994.

3) 한금숙, “특기·적성교육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4) 한금숙, 전게서, 1998.

5) 김선미, “학령기 아동 방과후 프로그램 모형정립”,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10.

자에게 넘겨줄 수 있으며, 최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등을 운영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Musson(1994)은 초등학교 아동지도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자아개념의 확장, 자아 존중감 향상, 학문적 기술과 지식을 얻는 채도 학습, 긍정적인 사회의 가치관 습득, 사회적 기술획득, 안전기술 학습, 도전 능력 향상, 개성 확립, 놀이를 통한 자기 표현 학습과 호기심과 기쁨 만끽, 기관에 대한 책임감과 주인의식 전수 등을 제시하였다.⁶⁾

이욱에 의하면 방과후 아동지도가 일차적으로 보호의 목적을 갖지만 초등학교 단계의 아동은 발달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학교 및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기술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의 목적은 아동의 발달과제-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며 초등학교 아동의 발달요구의 충족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방과후 아동지도는 아동들이 자신과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기 일을 스스로 행하고 공동생활에 적응하며 건강하고 창의적이며 독립적인 민주시민이 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숙명유아원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의 목적을 살펴보면 정서적 안정감과 긍정적인 자아 개념, 자율적인 시간관리 능력,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학습에 필요한 기초기술과 탐구능력, 다양한 특기활동에 대한 취향, 또래의 친구를 존중하는 태도와 능력, 부모와 지역사회에 대해 도움을 주고받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⁷⁾

문헌을 통하여 살펴본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의 목적은 방과후 활동을 보는 개념과 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견해들의 공통점을 찾아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의 목적을 종합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건강한 자아개념을 갖게 하여 바른 인성

6) 김선미, 전계서, 1997, p.19.

7) 서영숙외, 「프로젝트중심 방과후 아동지도」, (서울:양서원), 1996, P. 51.

을 갖춘 인간을 형성한다.

둘째,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중심 교육과정을 실현하며 학부모와 학습자의 사회적, 정서적, 지적요구를 충족시킨다.

셋째, 학생의 보충심화교육과 적성개발을 저 비용으로 제공하여 교육평등의 이상을 실현한다.

넷째, 학생의 독립심, 협동, 자기통제, 책임감을 포함하는 자율성을 기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바른 인성을 갖게 하고 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하여 학생의 독립심, 협동, 자기통제 및 책임감을 기르는 동시에 교육평등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은 교과수업이 인지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초점을 두되 학교교육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아동들의 사고력 신장과 창의성 개발에 목적을 두고 진행하되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3. 特技・適性教育의 內容

교육과정 편제상의 정규 교육활동은 신교육체제 이후 열린교육 이념이 받아들여지면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일상의 교육에서는 교사가 아직도 획일화된 교육내용을 관습대로 시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전환기에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은 신교육체제의 개념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학생의 요구 및 흥미를 존중하고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이 구성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취지를 실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시간 비율에서 학업과 관련된 활동은 전체활동의 6%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시간이 스포츠, 예술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재인은 방과후 아동지도의 목표와 관련하여 방과후 아동지도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으로 생활지도, 진로지도, 숙제지도, 특별활동지도, 학업계획 수립지원 및 학업성취도를 위한 지도, 놀이지도, 자율학습지도, 독서지도, 성교육을 제시하고 있다.⁸⁾

제도교육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은 1999년 6월 현재 초등학교의 99.3%가 실시하고 있고, 참여학생의 비율이 48.5%에 이른다.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내용은 학교의 시설 및 인적 자원과 관련되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영어,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과학, 글짓기 등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 예체능 중점의 특기신장 과정과 취미활동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의 내용은 절대적으로 학생의 요구와 교육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는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생의 발달요구에 따라 정서 사회적, 심미 운동적, 인지 기능 발달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의 자아실현과 창의성신장을 돕고 집단활동의 기회를 통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인지적 발달 중심이며 지식적인 학습사태 위주의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개별적이고 비형식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하여 약화된 가정기능을 보완하는 상담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도 영역에 포함시켜야 된다.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의 내용은 학생의 정서 사회적 발달, 심미 운동적 발달, 인지기능 발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가족기능의 약화에 의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가정 보완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또, 교사위주의 교수방법이 아닌 학생중심의 지도방법으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조화로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Prescott & Millich는 미국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after school program)을 내용과 시간배정 비율을 따져 조사하였는데 학습과 관련된 활동은 전체활동의 6%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시간이 스포츠, 예술활동에 주로 할애되어 있음을 알아냈다.⁹⁾

8) 김재인, 「초등학교에서의 방과 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아동연구회, 1996, p115.

9) 한국여성개발원,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총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7.

이러한 현상은 우리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는 입시 준비나 개인 과외비보다 취미와 소질 개발을 위한 예·체능계 학원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학원 수강비 실태를 보면 보습 학원비가 9.7%, 개인 과외비가 17.2%, 예·체능계 학원비가 73.1%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¹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학부모가 정규 학교 교육에서 가장 부족함을 느끼는 분야는 예·체능계임을 나타내준다.

Levine과 Seltzer는 학교의 시설 활용을 이용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¹¹⁾

- ①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사회의 필요성을 섭외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큰 틀을 잡는데 도움을 준다.
- ② 가능한 지역사회의 도움을 이끌어 내기 위해 위원회를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이 프로그램에 호의적인 학교장을 찾아 지역사회의 저항을 줄여야 한다.
- ④ 필요성에 따라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작은 규모로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 ⑤ 본 프로그램의 시행에 앞서 먼저 시험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겸손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한다.
- ⑥ 새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부모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 ⑦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의 예산은 학교 예산과 분리하여 수립한다.
- ⑧ 학교의 시설과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학교 관리인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위의 기준은 우리가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의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두려면 교육 수요자의 흥미를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아동의 흥미를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

10) 전하찬, 전계서, 서울 : 집문당, 1998.

11) 최기웅,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고대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6.

기본적으로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은 사고력 신장과 창의성 개발에 역점을 두고, 궁극적으로는 도덕적, 자율적, 자주적, 창의적 인간을 형성하는데 있으며, 예·체능 특기지도 및 학습 보충지도 등을 통해 가정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4. 特技・適性教育의 運營 指針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2000년 11월에 제작하여 현장에 배부한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지침¹²⁾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목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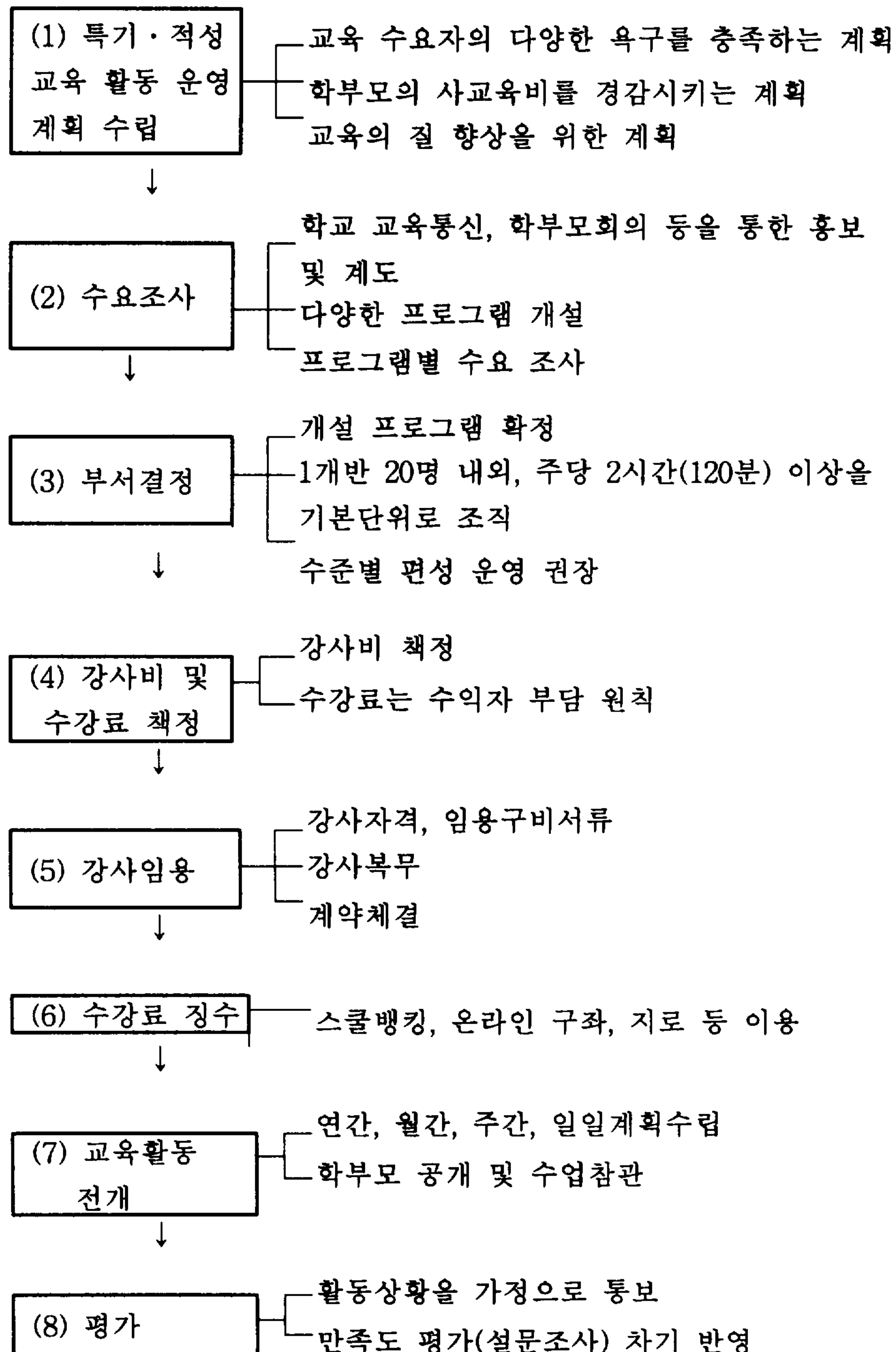
- (1) 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 신장 교육의 기회 제공
- (2) 방과 후 과외활동의 교내 흡수를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 (3) 교내 시설 및 지역사회 인적 자원 활용의 극대화
- (4) 다양화하는 교육 수요자의 욕구 충족과 열린 교육사회 지향

2) 방 침

- (1)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부서를 조직 운영한다.
- (2)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렴한 금액으로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 (3) 각종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회계관리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 (4) 강사채용 및 특기·적성교육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 (5)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운영한다.
- (6) 학교 전통과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부서 및 국악 등 전통예술 분야 부서 육성에 노력한다.
- (7) 특기·적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환류, 점검에 힘쓴다.
- (8) 단위 학교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12)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지침」, pp.2~15.

3)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 절차



4) 부서 선정

(1) 예상 부서의 수요조사

- ① 학교 및 지역사회의 실정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요를 조사하여 개설 가능한 예상 부서를 선정한다.
- ② 교과 교육에서 탈피하여 소질·적성 계발 및 특기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한다.
예) 수학→ 수리탐구, 재미있는 숫자 교실 등
과학→ 탐구회, 실험교실, 천재교실 등
- ③ 학교 특색 프로그램 (학교 전통 부서, 연구시범학교운영 관련 부서), 국악 등 전통예술 영역의 프로그램을 선정한다(권장사항).
- ④ 특기·적성교육활동의 운영방침, 주당 수업 시수, 예정 수강료 등을 기재한 학교 교육통신을 통해 부서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2) 부서별 반 조직

- ① 주당 2시간(120)을 기준으로 하고 부서별 인원은 부서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예) 컴퓨터 - 30명, 영어회화 - 20명, 바이올린 - 10명 등
- ② 국악 등 전통예술 영역을 편성·운영한다.

※ 국악등 전통예술 영역(예시)

- 음악분야 (국악, 민요, 시조창, 단소, 가야금, 거문고, 피리, 취타대 등)
- 미술분야 (한국화, 서예, 도예, 공예 등)
- 체육분야 (한국무용, 탈춤, 풍물놀이 등)

- ③ 부서별로 2개반 이상 편성시는 가급적 수준별로 반을 편성·운영한다.
- ④ 희망하는 학생수가 적거나, 특별 시설·설비가 필요하여 단위 학교 별로 개설이 곤란한 일부 프로그램은 인근 학교와 협력 또는 지역 교육청 주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권장사항).

5) 강사의 임용 및 관리

(1) 강사의 임용

- ① 강사의 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용한다.

단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강사가 교체될 경우 학교장이 우선 임명하고 추후 학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② 강사 선발

서류 심사 및 면접 후 선발한다.

(2) 강사의 자격

강사의 자격은 아래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교사 발령 대기자, 교대생 및 사대생, 전공과 부합되는 대학생 및 졸업자
- ② 교사자격증 소지자
- ③ 해당분야 대학졸업자, 예·체능 전문가, 기술·기능 보유자, 인력 풀에 등록된 강사 등
- ④ 희망하는 현직교사

그 교사가 아니면 개설 및 유지하기 곤란한 영역에서는 학교 교육활동 및 동학년 운영에 지장이 없는 교사로 하고, 동료 교사와의 위화감이 조성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권장사항).

(3) 강사의 임용 구비 서류

- ① 이력서(사진부착) 1통
- ② 최종학력 증명서 1통
- ③ 자격증 사본(원본대조) 1통
- ④ 채용 신체 검사서 1통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에 준함)
- ⑤ 주민등록등본 1통
- ⑥ 신원조회 회보서 1통

(다만, 별도의 범법사실 발견 시 즉각 해임조항을 계약서에 명기)

※ 강사의 본적지 행정기관에 의뢰

- ⑦ 채용 계약서 2부 (학교와 강사가 각각 보관)

- ⑧ 기타 필요한 서류

※ 같은 학교에서의 재 계약서에는 종전의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단, 채용 신체검사서의 경우는 2년간 유효하다.

(4) 임용 계약서 작성

- ① 임용 계약은 학교장과 강사가 직접 한다 (계약시 학교장 사인 날인).

※ 강사파견 업체와의 계약은 노동부장관의 강사 파견 업체 허가증발급이 불가하므로 금한다 (금지사항).

- ② 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강의시간, 보수, 주요 복무사항, 해임에 관한 사항 등

- ③ 계약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5) 강사의 복무

- ① 복무는 교원의 복무에 준하도록 하고 그 중요 부분은 계약서에 명기한다.

- ②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강의 시작 20분전부터 강의 종료 후 20분까지로 한다.

- ③ 강의 자료 및 학습지도 자료는 본인이 준비하고 관리한다.

- ④ 강사 전일제 근무는 금지되며, 특히 강사는 정규 수업시간에 강의할 수 없다.

(6) 강사의 해임

-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해임된다.

- ② 계약기간 중 강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해임한다 (의무사항).

1차 경고 → 공개수업 요구 → 공개수업 참관 후 평가회 실시 (교사, 학부모 평가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회부 → 해임 결의 → 해임 통보

6) 수강료 및 강사비 책정

(1) 수강료 결정

- ①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는 한 예년 수준을 유지한다 (권장사항).

- ② 수강료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하여야 한다 (의무사항).

(2) 수강료 수납 및 환불

- ① 수강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월별, 분기별 또는 학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 ② 수강료는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중도탈락자에 대한 개인별 수강료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전학·장기입원 등으로 인하여 수강하지 못할 경우는 환불한다.
 - 환불액은 월 수강료×(납부 개월 수 - 수강 개월 수)로 한다.
 - 수강할 달의 1회라도 수강하였을 경우 그 달은 수강한 것으로 간주한다.
 - 환불방법은 스쿨뱅킹, 온라인 계좌 등을 이용하되 이때 송금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 환불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환불요구 → 담당교사 확인 → 환불요구서 기재 후 결재 → 사무실에서 확인 후 환불

(3) 강사비 책정

- ① 강사비는 각 부서별로 책정·운영한다.
 - 부서의 특성, 전문성, 개별지도를 위한 수강 학생의 수, 강의 시간 수, 담당강좌 수 등에 따라 부서별로 강사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②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책정하되, 인접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 ③ 강사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한다. (의무사항)
- ④ 현직 교사의 경우 동료 교사와의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정한다.
- ⑤ 강사비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이 때 수강 학생수가 현저히 줄거나 늘어날 것에 대비, 강사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이를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⑥ 학교실정에 따라 징수하는 수강료에 의해 강사비가 책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되도록 기본 강사비와 형평을 맞춘다.

※ 강사비 책정 사례(예시)

1. 외부 전문 강사인 경우

< 사례1 > 기본 강사비

주 2시간(120분) 1강좌를 강의 : 월 40만원내외

< 사례2 > 담당 강좌수에 따라 누감제 적용

주 2시간 1강좌를 강의할 경우 월 40만원내외

주 2시간 2강좌를 강의할 경우 월 70만원내외

주 2시간 3강좌를 강의할 경우 월 90만원내외

2. 현직 교사인 경우

초등학교 시간강사 수당 기준 [1시간(60분)당 20,000원 내외]

(4) 강사비의 지급

- ① 강사비는 계약서에 의해 지급한다.
- ② 강사의 중도 해약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사망 : 강의한 시간 분의 강사비 100%
 -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 : 강의한 시간 분의 강사비 80%
 - 강사 본인의 잘못으로 계약 파기한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③ 강사비 지급의 원인행위는 담당교사가 하고 지급은 일상경비 출납원이 한다.
- ④ 강사비는 월별로 지급한다.
- ⑤ 소득세법 제 145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 징수한다.
- ⑥ 강사비를 구좌 송금 시 수수료는 강사 부담으로 한다.

7)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1) 다음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운영하여야 한다.

- ① 프로그램 개설
- ② 강사임용 및 해임
- ③ 수강료 및 강사비 책정
- ④ 관리비 징수 및 책정
- ⑤ 예·결산 운용
- ⑥ 기타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7조 참조>

-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내용, 예산 집행 결과 등은 전체 학부모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각종 지원금 운용

- (1) 각종지원금은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 각종지원금이란 교육청 지원금, 특기·적성교육 목적의 학교 발전기금 등을 말한다.

- (2) 특기·적성교육활동을 위한 각종지원금은 다음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① 강사비 보전

강사비 보전이란 부서별로 계약한 강사비와 학생수강료의 차액을 각종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말함

② 저소득층 등의 수강료 지원

저소득층

- 생활보호대상자 :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생보자 증명서
- 실직자 자녀 : 실직자 증명서(3개월 평균 월 30만원 미만으로 실업 급여를 받거나 구직 등록중인 자의 자녀)
- 소년·소녀 가장 : 학교 담임이 추천하는 추천서
- 저소득층 자녀 : 생활보호대상자에 준 하는 학생으로 학급 담임 추천서
- 보훈 대상자 자녀 : 보훈처에서 발급하는 보훈대상자 증명서

③ 자원봉사자 지원

자원봉사자는 대학생 봉사자, 명예교사 등을 말하며 교통비 보조로 1일 1만원(10,000)이내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음

④ 전시회·발표회 소요경비 지원

⑤ 간단한 교구 구입 및 수리비 지원 등

9) 평가 및 환류

(1) 수업의 질 관리

- ① 강사는 기별, 일일지도 계획을 작성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 ② 강사는 사전 교재 연구, 학습 자료 제작 등 수업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 ③ 강사는 계약기간 내 1회 이상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업을 공개하도록 한다 (권장사항).
- ④ 학교에서는 부서별로 관리담당자를 두어 강사 및 수업 관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 ⑤ 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학교 및 교육청을 실정에 맞게 연수를 실시한다.

(2) 활동평가 및 환류

- ① 교육활동 상황평가는 계약기간 내 1회 이상 가정으로 통보한다.
- ② 학생·학부모·교원의 만족도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 ③ 교육청은 장학지도, 감사 등을 통해 운영상황을 평가한다.

(3) 학생 축제문화로 승화

- ① 학교별로 전시회, 발표회 등을 통해 발표의 기회를 확대한다.
- ② 단위학교, 학교간 연합, 지역 교육청 단위의 다양한 특기 발표로 학생 축제문화로 승화시킨다.

10) 회계관리

- (1) 특기·적성교육활동의 회계(수익자부담 경비, 각종지원금)는 별도 회계로 운영하여야 한다 (의무사항).
- (2) 장부정리는 부서(목)별로 기록 정리하여야 하며, 모든 부서를 혼합하여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무사항).
- (3) 부서별 정산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상 학생에게 환불한다 (의무사항).
다만, 환불액이 1인당 1,000원 미만의 소액일 경우 해당 부서의 필요 물품을 구입하거나 학용품 등을 구매·환불할 수 있다.

- (4)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주는 강사의 채용(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은 금지하며,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강사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법 제25조, 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참조).

11) 최소한의 관리비 징수 및 사용

- (1) 부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관리비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선택사항).

- ① 최소한의 관리비는 공동 경비와 부서 경비로 나누어 사용한다.

· 공동 경비 : 수도료, 전기료, 냉·난방비(유류대), 청소용역비, 복사용지

· 부서 경비 : 부서의 특색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

예) 컴퓨터부 - 인터넷 사용료, 부품교체비, 컴퓨터실 에어컨 전기료 등

- ② 부득이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 최소한의 관리비 징수 및 사용범위

- ① 최소한의 관리비 중 공동경비는 수익자 부담 수강료의 10% 범위 내에서 징수·사용할 수 있다.

- ② 부서 경비는 부서별 별도계획이 의거 수익자부담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생의 형편을 고려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③ 최소한의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 그 집행결과를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의무사항).

- (3) 관리비의 지급 절차는 도급경비 지급절차에 준 한다.

12) 기타

- (1) 교육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민간업체 참여 컴퓨터 프로그램은 강사비 보전 및 극빈자 등 지원에서 제외한다.

- (2) 이 지침에 없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책임 운영한다.

- (3) 저소득층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강사와 협의하여 무료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배려한다.

5. 特技・適性教育 運營 現況

교육부에서 발간한 '99 특기·적성교육활동 우수사례집¹³⁾의 자료에 따르면 99년 6월 30일 기준으로 특기·적성교육은 전국의 10,255개교의 97.5%인 10,000개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5,543교의 99.3%인 5,505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표 3> 특기·적성교육활동 실시 학교 수 (단위: 교)

구분 학교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총 학교 수	5,543	2,759	1,953	10,255
실시 학교수	5,505	2,708	1,787	10,000
비율(%)	99.3	96.2	91.5	97.5

특기·적성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비율은 전체 학생의 42.4%가 참여하고 있고 그 중 초등학교 학생의 참여비율이 높아 48.5%가 참여하고 있다.

<표 4> 특기·적성교육활동 참여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학교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총 학교 수	3,752,773	1,864,617	1,762,585	7,379,975
실시 학교수	1,820,971	708,042	601,996	3,131,009
비율(%)	48.5	38.0	34.2	42.4

특기·적성교육활동으로 운영중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01종, 중학교 94종, 고등학교 107종이 운영되어 총302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래<표 5>을 보면 교과관련 프로그램이 77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3) 교육부, 「적성과 소질을 살려주는 교육」, 1999, 12. pp.14~17.

<표 5> 실시 프로그램 종류

(단위: 프로그램)

영역 \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평균
교과관련	25	24	28	77	26
음악관련	17	16	16	49	17
미술관련	18	13	13	44	15
체육관련	19	16	21	56	19
기 타	22	25	29	76	25
계	101	94	107	302	102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초·중·고 모두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어학 관련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는 컴퓨터, 영어 회화, 미술, 글짓기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것은 정보화 시대로 이행해 가는 사회적 추세와 함께 각급 학교에 컴퓨터실이 설치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과 장소가 갖추어져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6>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

프로그램 \ 학교급	교 과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초등학교	컴퓨터	영어 회화	미술 관련	글짓기	서예	과학 탐구	사물 놀이	바이올린	수학 영재	바둑	합창	종이 접기	체육 관련	무용
중학교	컴퓨터	영어 회화	일어 회화	논술	수리 탐구	사물 놀이	축구	미술	과학 탐구	구기 운동	테니스	기악	독서	볼링
일반계 고등학교	컴퓨터	영어 회화	일어 회화	논술	워드	사물 놀이	수학 탐구	인터넷	볼링	테니스	문예 창작	탁구	한자	독서 토론
실업계 고등학교	컴퓨터	워드	인터넷	사물 놀이	영어 회화	일어 회화	정보 처리	기능사	그래픽	조리	미술	에어 로빅	축구	만화

특기·적성교육활동은 이웃학교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교육청이나 사회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인근학교와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총 1,157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 수는 1,548개 교, 참여 학생 수는 64,642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초등학교는 594개 프

로그래에 1,035개교가 참여하고 있고 참여학생수도 46,035명이 참여하고 있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는 비교적 초등학교가 소규모 학교가 많고 학교간 거리도 비교적 가깝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7> 과 같이 인접학교 협력 프로그램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컴퓨터, 영어회화, 사물놀이, 수영, 바이올린, 생활체육 등의 순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7> 인근학교 협력 프로그램 운영

학교급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99.3	'99.6	'99.3	'99.6	'99.3	'99.6	'99.3	'99.6
프로그램수	541	594	341	347	232	216	1,114	1,157
참여학교수	952	1,035	321	314	151	199	1,424	1,548
참여학생수	43,554	46,035	10,593	10,975	6,026	7,632	60,173	64,642

<표 8> 인근학교 협력 대표적인 프로그램

순	1	2	3	4	5	6	7	8	9	10
프로그램명	컴퓨터	영어회화	사물놀이	수영	바이올린	생활체육	서예	일어회화	미술	연합합창

교육청이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초 628개 프로그램에 3,021개교가 참여하고 있고 133,192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368개 프로그램에 2,013개교가 참여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고 참여 학생 수는 68,61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래<표 9>에 의하면 과학발명 교실, 종합예술제, 사물놀이, 국악교실 등 일반학교에서 많이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9> 교육청 주관 운영 프로그램

학교급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99.3	'99.6	'99.3	'99.6	'99.3	'99.6	'99.3	'99.6
프로그램수	321	368	137	209	33	51	491	628
참여학교수	1,792	2,013	213	762	165	246	2,047	3,021
참여학생수	39,351	68,611	18,120	43,183	8,054	21,398	65,525	133,192

<표 10> 교육청 주관 운영 대표적인 프로그램

순	1	2	3	4	5	6	7	8	9	10
프로그램명	과학 발명교실	종합 예술제	사물 놀이	국악 교실	미술	독서	관악	음악	육상	수영

특기·적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수는 전국적으로 106,940명으로써 그 현황은 아래 <표 11>와 같다. 지도강사는 현직교사와 외부강사로 크게 구분되는데 현직교사가 67,495명으로 63.1%를 외부강사가 38,511명으로 36.0%를 차지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현직교사가 27,099명으로 49.9%를 외부강사가 26,447명으로 48.7%로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현직교사 중 43.7%가 무급으로 지도하고 있다.

<표 11> 강 사 현 황

(단위: 명)

강사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인원수 (명)	비율 (%)	인원수 (명)	비율 (%)	인원수 (명)	비율 (%)	인원수 (명)	비율 (%)
현 직 교 사	유 급	3,395	6,3	18,502	61,7	14,429	63,7	36,326	34,0
	무 급	23,704	43,7	4,039	13,5	3,426	15,1	31,169	29,1
	계	27,099	49,9	22,541	75,2	17,855	78,8	67,495	63,1
외 부 강 사	전문강사	14,245	26,2	2,283	17,6	3,794	16,7	23,320	1,8
	전문단체강사	2,528	4,7	995	3,3	625	2,8	4,148	3,9
	인력풀강사	9,018	16,6	842	2,8	163	0,7	10,023	9,4
	자원봉사자	656	1,2	227	0,8	155	0,7	1,038	1,0
	계	26,447	48,7	7,347	24,5	4,717	20,6	38,511	36,0
명예교사		740	1,4	97	0,3	97	0,4	934	0,9
계		54,286	100	29,985	100	22,669	100	106,940	100

시간당 강사료 지급 현황을 보면 학교급 별로는 차이가 없으나 외부강사의 강사료와 현직교사의 강사료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강사료 시간당 평균 지급 현황 (단위: 원)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현직교사		13,651	16,214	18,780	16,215
외 부 강 사	전문강사	25,609	22,068	25,762	24,479
	전문단체강사	23,845	20,302	23,805	22,650
	인력풀 강사	22,418	21,302	22,047	21,922
평균		21,380	19,971	22,598	21,316

학생 1인당 월 평균 부담액은 15,462원으로 조사되었는데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19,634원으로 중학생 12,536원과 고등학교 14,216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의 외부강사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98년 5월의 월 평균 부담액 19,333원에 비하여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학생 1인당 월 평균 부담액 (단위: 원)

구 분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월 평 균
부담액	19,634	12,536	14,216	15,462
'98.5 부담액	23,000	18,000	17,000	19,333

저소득층 지원자수는 254,064명이고 저소득층 자녀의 지원이 167,199명으로 전체 지원자의 65.8%를 차지하고 있다.

6. 外國의 特技・適性教育(例)¹⁴⁾

1) 미국

미국의 특기・적성교육은 다양성 차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수 사례들 또한 각각 주요한 지역의 특수성이나 환경을 잘 활용한 개별적인 특성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다. 모범적인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사례와 그 특징을 소개하여 성공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요소들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본다.

(1) Iowa의 'Ankeny'의 사례

25,000명이 거주하여 적극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지역사회인 Iowa의 'Ankeny'는 지역사회센터와 K-12학년 청소년 5,000여명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학교를 통하여 방과후 활동・성인교육 강좌, 약물 남용 상담, 가정 서비스, 레크레이션, 지역사회모임을 위한 만남의 장소, 다양한 청소년 법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기금은 다양한 경로로부터 모아진다. 예를 들면 사용자 부담비, 등록비, 교사・부모 협회, 연방 정부와 주(州) 보조금, 지역 자발 기금, 시, 학교 기부금, 개인적 사용시 시설 대여비 등이다.

(2) Cason Lane Academy(K-8학년)의 사례

Mufreesboro에 있는 9개의 초등학교들은 정규 수업이외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5일, 일년 단위로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개방된다. 새로운 방식으로 학교 생활을 찾는 Cason Lane Academy(K-8학년)에서는 하루가 다음과 같이 나뉘어져 있다.

- ① 독서와 같은 전통적 학습(10시까지)
- ② 소규모 그룹 활동, 개인 지도 그리고 모든 학생을 위한 음악과 예술 수업 (10-오후 3시까지)
- ③ “폭 넓은 기회의 확대”에서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위해 예술, 레크레이션, 인생 기법과 같은 강좌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지도는 Cason Lane 의 교사가 맡아서 지도한다. (오후 3시~5시)

14)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 특별활동 이렇게 운영해 보세요」, 2001, 11, pp.50~66.

(3) LA의 BEST의 사례

성장과 레크레이션을 위한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LA의 BEST(Better Educated Students for Tomorrow)는 교사와 여러 지도진을 통해 전 도시에 걸쳐 62개 학교, 10,000명의 학생들에게 학과 지도 및 교육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자기 훈련(self-discipline), 자신감(self-confidence), 상호 개인적 기술을 발달시킬 기회를 갖게된다. 로스앤젤레스 통합 학교 분과, 로스앤젤레스 시, 캘리포니아 교육 분과 그리고 개인 회사들과 공동 제휴로 프로그램은 방과후 6시까지 운영된다. 숙제 보조, 학습 활동, 컴퓨터, 요리, 스포츠, 현장, 견학, 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짜여 있고 창조적인 활동으로는 무용, 음악, 과학 등이 포함되어 있다. LA의 BEST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정규 교육과정에도 더욱 강한 열의를 가지고 임하며 또한 행동도 적극적이 되었다. LA BEST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학교들의 교내 학생 비행도 감소했다.

(4) CLC 프로그램의 사례

① 캘리포니아의 산호세 Alum Rock Union 초등학교 구의 CLC 프로그램 중학교 학생들에게 학업 성취를 통하여 자아 존중감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Alum Rock School, 산호세 대학 그리고 산호세 미술 박물관을 통하여 학생들은 학술, 교양 그리고 동기 유발에 관련된 각종 기회들을 경험한다. 프로그램은 특별히 추가적인 보충 수업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주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영어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제2외국어를 사용한다. 인성교육 및 건전한 시민 육성을 위한 CLC프로그램은 3곳의 중학교(Sheppard, Ocala 그리고 Pala에서 오후 2:30부터 오후 5시까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운영된다.

② 오클라호마, Tahlepush에 있는 Boys and Girls Club

젊은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 행동 그리고 기술 등을 획득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클럽은 어린이들을 위한 건강, 사회적 기술, 교육, 성격, 지도력 등의 개발을 꾀한다. 학기동안에 클럽은 수업이 끝난 시간부터 오후 6시(월요일-목요일)까지 중학교와 Tahlequah 초등학교 2곳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일주일에 하룻밤은 가족을 위한 밤으로 여기에서 부모들은 그들

의 자녀와 컴퓨터로 작업한다. 대략 350여명의 어린이들이 매일 스낵을 제공받고 있으며 과제 도움도 받고 과외 활동도 한다.

(5) 다목적 기능의 도시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사례

① Harbor

뉴욕주 East Harlem에서 운영되는 도시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다. 원래는 장애청소년을 위한 여름 캠프로서 1937년에 세워졌다. 이제는 다목적 기능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고안된 기관으로 레크레이션 교육 그리고 프로그램 안내를 결합하는 광범위한 교육 서비스를 가지고 5-21세 연령의 4,000여명이 넘는 청소년들에게 제공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오후 3시에서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매 주말과 방학 동안에는 전일에 걸쳐서 평균 400여명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공급된다.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학업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망되는 충돌 해결 기술, 비평적 사고기능, 토론 문화 등을 발달시켜 나간다. 교육활동은 과학, 예술, 스포츠, 외국어, 사진학, 영화, 컴퓨터 워킹, 도자기 그리고 요리, 영양학 등을 포함하고 있다.

② LEAP(Leadership, Education and Athletics in Partnership)

코네티컷 5 도시(New Haven, Hartford, New London, Waterbury, Bridgeport)에 있는 연령 7~14세의 1,200여명 도시 어린이들을 위한 학술적·사회적 프로그램이다.

정규 학기가 운영되는 동안에는 프로그램이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여름 방학 프로그램은 아침 식사, 점심, 미팅, 레크리에이션, 독서 강좌, 각종 활동 등을 포함하는데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우리 나라의 특기·적성교육에 주는 시사점】

미국의 특기·적성교육의 특징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대상을 초점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우등생, 보통 학생, 학습부진아,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 있다.

둘째, 다양한 프로그램은 예체능 계통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

뿐만 아니라 지적인 측면의 3R's와 사고력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즉 풍부한 경험과 학습활동을 제공한다.

셋째, 여러 기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대학, 연구소, 지역사회 기관, 학교 등 다양한 기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때로는 수익자 부담으로 때로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넷째, 프로그램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들에 대한 충원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와 같이 교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다섯째,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즉, 가정, 학교, 사회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각 지역 사회가 갖는 특유한 문제를 해결하며, 교육 문제와 사회문제를 연결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여섯째, 재정지원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대학 기부금, 시설 대여비, 등록비, 연방정부와 주 보조금, 지역 자체 기금 등이 있다.

일곱째, 특기·적성교육 내용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진로지도의 기초 자료로 쓰이고 장차 그들의 진학과 사회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여덟째, 자상하고 유능한 성인들과의 관계망을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2) 영국

영국의 특기·적성교육은 그 목적을 학생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며 방과후 시간의 교육적·사회적인 잠재력을 제고하고 향상시키는데 두고 있으므로, 학교별로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초등 및 중등의 학교 사례를 간략하게 제시하기로 한다.

(1) Clackmannanshire Council의 Tillicoultry Primary School의 사례

Clackmannanshire 주에 위치한 Tillicoultry Primary School은 방과후 시간에 운영되는 탁구, 풋볼, 리코더연주, 배드민턴, 연극의 특기·적성교육 부서를 조직,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http://education.clacks.gov.uk/school>).

이 학교의 경우 비교적 소수의 부서를 조직, 운영하면서, 방과후 시간

을 활용하여 학교 중점 프로그램을 발달시켜 가는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2) Milverton Community Primary School의 사례

이 학교는 West Smerset 외곽지역에 위치한 학교로 학년당 각 반의 평균 30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학교이다. 이 학교는 영국의 Her Majesty's Chief Inspector가 선정, 영국의 Department of Education and Employment의 리스트의 1995년 우수학교로 지정된 학교로 OFSTED 학교의 하나이다. Milverton Community Primary School은 음악교육에 관심을 깊이 가지고 있어서, Milverton 지역을 순회하는 기악전공 음악 교사에 의해 주당 5회 정도 음악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 또 그 외에도 방과후 다양한 학교클럽 운영 및 정규방문 연주, 학교재학 5~6년간 매년 정기적인 학교 캠프, 지역 개최 스포츠대회의 정기적인 참여, 음악교육 및 환경교육 등의 많은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staffordshire.gov.uk/news>).

(3) Norden Community Primary School의 사례

이 학교는 Norden, Rochdale의 Shawfield Lane에 위치한 학교 역사가 60년이 넘는 비교적 전통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방과후 및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합창부, 리코더부, 풋볼, 농구, 야구, 정구, 스포츠댄스, 트램블린, 수영·기술, 바느질 및 기타 여러 스포츠 활동을 하는 부서를 조직,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부서들 중 전체의 50% 이상의 부서들은 일과시간은 물론이고, 방과후 및 저녁시간, 주말에도 부서 운영을 하는데, 이러한 부서 운영은 학부형은 물론이고, 친구 및 친척과 같은 모든 지역사회 성원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수업시간 중에 운영되는 몇몇 부서들은 지역사회의 탁아기능을 겸하고 있기도 하다. 또 특기·적성교육의 일환으로 지역행사의 일부인 Norden Festival, Norden Carnival, Rochdale Arts Festival 및 학교 축구와 수영리그, 노래경연대회 등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어떤 특기·적성교육은 다른 학교에서 하도록 하기도 한다. 또 교실수업의 주제와 딱 들어맞는 경우에는 경찰서나 소방서, 인형극장 등의 방문을 통하여 연계시키기도 한다

(인터넷 : <http://www.norden.rochdale.sch.uk>).

【우리 나라의 특기·적성교육에 주는 시사점】

이상에서 제시한 영국의 특기·적성교육이 우리의 특기·적성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기·적성교육의 개념과 영역에 대한 시사점이다. 영국의 특기·적성교육은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Curriculum Enrichment, Curriculum Extension, Homework의 3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 Curriculum Enrichment, Homework는 현재 우리의 특기·적성교육에서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는 활동의 영역이다. 실제로 특기·적성교육의 사회적 기능은 방과후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특기·적성교육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기능, 즉 방과후의 숙제지도나 본인이 원하거나 또는 교사가 권고하는 보충식 교과공부의 영역이 현재에는 특기·적성교육을 오도할 우려에 의해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특기·적성교육의 본래 의미와 사회적 기능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영역의 활동 프로그램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특기·적성교육에서의 융통성 있는 시간의 활용이다. 영국의 특기·적성교육은 수업전후는 물론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탄력적으로 시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기 중의 방과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특기·적성교육 운영에도 이러한 시간 운영의 탄력성을 적용하여 학기 중의 수업전후는 물론이고, 방학중 프로그램 운영이나 주말반, 점심시간 운영반 등 운영의 다양성을 적용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영국의 특기·적성교육은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을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상교육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사립학교를 제외한 16세까지의 중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은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방과후 교육에서도 이러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이 취약한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 특기·적성교육도 무상화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기회의 평등성이나 공평성을 고려할 때, 우리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문화가 결핍되어 있는 저소득 계층이나 낙후된 지역의 학교에는 정부에서 정규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통하여 양질의 특기·적성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영국의 특기·적성교육은 재정적 지원을 정부로부터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인사 등으로 다원화하여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 학교설립 주체와는 무관하게 학교의 재정 기반 확보를 정부이외의 다양한 주체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원화하고 있다. 이러한 다원화는 지역사회인사와 학교와의 연계성을 도모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일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재정이 취약한 우리의 학교사회에서도 특기·적성교육 운영과 관련된 이러한 재정기반 확보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영국의 특기·적성교육이 정규수업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영국의 특기·적성교육의 명칭(Curriculum Enrichment, Curriculum Extension)에서 암시 받을 수 있듯이 영국의 특기·적성교육은 정규 교육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기·적성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의 특별활동영역이나 재량활동영역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지만,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특기·적성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또 선택한 학생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여 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도모하여, 학생들이 그들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의 장을 특기·적성교육 시간에서 확장하여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묘안이 요구된다.

여섯째, 영국의 특기·적성교육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연계를 가지며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학교의 클럽활동의 일부로 수용하기도 하며, 지역사회의 각종 경연 대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클럽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자원을 학교 안으로 적극 수용하고, 이를 반영하기도 하며 통합 운영을 도모하기도 하는 사례 등은 주로 학교 내에서의 활동만으로 제한되고 있는 우리의 특기·적성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3) 프랑스

특기·적성교육의 목적은 학생이 학교 방과후 시간을 잘 활용하여 그의 학업 향상과 인성을 꽃피우고, 사회적 생활을 효율적으로 배우도록 하는데 있다. 특히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에게 우선권

을 주며 적절하게 시간을 활용하여 그들의 조화로운 발달을 돕고자 하고 있다.

(1) 지역교육 프로젝트의 사례

이 프로젝트는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의 취학 아동과 청소년이 관련된다. 시간과 활동의 조직은 학기 중, 방학 후, 방학기간간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구성된다. 교육활동의 조직을 위해 학교수업에서 마치는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방과후 시간 : 학교수업전이나 수업 후

- 학교 가는 시간
- 수업시작 전 학교 안에서 맞아들이는 시간
- 학교에서의 쉬는 시간
- 수업 후 지도수업, 소풍, 문화 체육활동시간
- 학교 수업이 없는 수요일 오후

★ 학교 수업이 끝난 저녁 시간, 수업이 없는 수요일, 주말, 방학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시간의 성격에 따라 지역교육프로젝트는 다양한 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이 지역교육프로젝트의 특성을 살펴보면,

-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이들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직되고 있다.
- 휴식과 시간과 놀이 시간, 자발적인 활동의 의미를 인식시켜서 하루하루가 풍요로와 지도록 격려한다.
- 개인적·집단적 놀이를 통해 창조성과 논리적 자질을 개발한다.
- 실험에 의한 호기심과 과학적 정신을 개발한다.
- 정보통신 공학의 활용에 의해 통신능력을 함양한다.
- 다양한 신체 및 스포츠 활동을 통해 그들 자신의 신체를 이해한다.
- 예술 및 문화 활동에 의해 감수성과 호기심, 창조성을 개발한다.
- 공동체 생활과 시민 정신을 익히도록 하고 있다.

각 지역교육프로젝트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교육부는 각 학교에 고용할 교사 보조원 등의 자원 교원 선발고사를 시행한다. 또한 탈중앙집권적인 교육자금의 일부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 쓰인다. 청년 및 스포츠부와 문화부도 각각 이들 프로젝트의 재정을 지원할 것이다. 시장과 지역단체들 역시 재정 지원의 의무를 분담하고 있다.

(2)콩세르바뚜와르의 사례(Conseruvatoire de Musique Et d'expression Artistique)

콩세르바뚜와르는 특기·적성교육 기관으로 가장 대표적이며 정통적인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문화부 후원 하에 다양한 전공교육을 갖춘 음악 및 예술 전문교육기관이며, 음악성의 감사를 받으며, 소르본느 대학에 의해 인증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전국 400여개의 콩세르바뚜와르는 전문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실기시험(오디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교양취미활동을 원하는 일반 시민은 시험 없이도 자유로운 개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장애학생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 다양한 전공

① 앙상블

- 합창 : 모든 사람에게 개방, 연령제한 무, 모든 스타일 및 모든 시대별 합창
- 보컬 및 악기 협연
- 다양한 악기전공 (아마추어, 전공학생, 모든 수준)
- 피아노 전공 (이중주, 4중주, 8중주 포함, 모든 수준의 아마추어과정 및 전공학생, 교사)

② 음악이론

③ 작곡 : 모든 수준의 과정, 연령제한 무

④ 조형예술

⑤ 연극

⑥ 재교육과정 : 전문음악가 또는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와 다양한 악기 연주자, 아동, 학생, 교사대상

(3) Centre Socio-culturel Yannick-noah의 사례

Asnieres-sur-Seine 지역에 위치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사회-문화센터로서 컴퓨터 정보통신, 미술, 음악성 계발, 신체 표현, 스포츠, 연극, 비디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특히 수요일과 방학 동안에 아동과 청년에게 특별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다양한 문화적 주제별 전시회와 토론회가 수시로 열린다.

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 음악 아뜰리에 : 전세계의 전통 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악기, 즉 현악기, 관현 악기, 타악기 등을 갖추놓고 있으며 악기와 노래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무용 : 예술성 개발을 통해 신체 조절을 익히는데 목표가 있다. 리듬 학습과 공간에서의 율동 학습
- 정보통신 : 정보통신초급, 교육, 그림, 음악, 모험 프로그램(학기당 300프랑, 약 4만 5천원)
- 미술 : 아뜰리에 교육, 데생, 유화 등 색채 실습과 장식기법, 다양한 재질에 대한 학습
- 연극 : 신체 및 음성

②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 정보통신 및 인터넷 : 초급, 중급, 고급 등 다양한 수준별 코스, 워드 교육 및 인터넷 클럽 구성, 주제별 인터넷 항해 : 영화, 문학, 시사, 과학포럼, 요리 등 (학기당 약 4만 5 천원)
- 교육 ○ 스포츠 ○ 어학 ○ 수공예
- 재즈 등

③ 체육 특기 · 적성교육

일부 중등학교에서 청소년 체육인(꿈나무) 육성을 위한 체육 특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업시간을 조정하여 일반적으로 하루에 4~5시간의 정규수업과 방과후 6시간의 훈련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대부분 기숙학교인 이들 학교에의 입학은 학군과는 상관없이 종목, 실력 수준, 소속연맹, 학업성적,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소속연맹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며, 학생이 개인적으로 학교를 선택할 수는 없다. 꿈나무 육성 교육기관은 청소년체육부 산하 체육원(INSEP)에서 관리하고 있다.

④ 어학 특기·적성교육 : 다국어 학교 (E.a.B : Ecole active Bilingue)

교육부와의 협력계약 체결 하에 1954년에 설립된 사립학교인 다국어 학교(E.a.B)는 성공적인 어학 특기·적성교육을 이룬 학교로 평가되고 있다. 프랑스 국가공식교육과정에 조기 다국어 교육을 연계시킨 중요한 교육혁신 학교로 지목된다. UNESCO 연합학교체제에 가입된 다국어 학교는 국제적 사명을 가진 학교기관으로서, 언어학적·교육학적 연구를 통한 커다란 교육적 기여도로 교육혁신의 성공적 사례를 이루었으며 학생들에게 최선의 장래 준비가 되도록 이끌고 있는 것이다. 다국어 학교는 파리의 8구, 16구, 17구내 개선문 근처에 설립된 5개의 소속 학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0명 이상의 학생을 받아들인다.

다국어 학교의 교육의 주요 원리인 2개 언어사용 주위는 언어에 대한 다양한 개방과 개방된 언어학적 학습으로 이끈다. “우리는 말하는 만큼 생각한다.” 라는 의식을 나타낸다. 다국어 학교는 문화의 진정한 교차로 역할을 시도하고 있다. 언어를 배우는 기쁨이 다국어 학교의 효율성을 이루는 가치들 중하나이다. 여기서 3세부터 매일 실시되는 영어 교육은 교육학적·교육 방법론적 개방을 위한 결정적이며 보충적인 도구로서 간주되며, C.M 1학년 (우리 나라 초등 4학년)부터의 독어 또는 스페인어 교육으로 실천되는 다언어 주의의 토대로 이루게 된다. 초등학교 단계의 언어 교육진은 모국어가 교육 언어인 교사들로 오로지 구성된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언어 교육의 목표로서, 초등학교에서 습득한 언어의 관리와 개발이 각 학생을 그의 위치와 학습 리듬을 찾도록 유연성 있는 교육에 의해 수준에 따라 그룹별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다국어 학교에서 주어지는 종단적 교육 접근은 탄탄한 언어 교육이 되게끔 이끌어주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특기·적성교육에 주는 시사점】

첫째, 국가와 각 지역단체 및 교육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와 재정적 지원이다.

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모든 교육 기관들이 긴밀한 파트너십을 갖고 협조와 재정지원을 분담하는 것이 상당히 시사적이라 할 수 있다. 각 지역이 탈 중앙집권화의 움직임 속에서 상당한 자율성과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통적인 중앙집권적인 체제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조

직되었었던 전국 각 지역의 교육체제가 거미줄과 같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부기관의 지시, 감독의 성격이 아닌 서로 지원협조 운영체제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는 점이 배울만하다.

둘째, 교육복지제도를 들 수 있다. 프랑스의 특기·적성교육은 수준 높은 공교육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우수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음악, 미술 교육과 연극 등 특기·적성교육을 위해서는 뭉쎈르바뚜와르와 다양한 사회 문화 센터가 있으며 체육 특기·적성교육을 위해서도 역시 다양한 국가 사회 체육 교육 기관이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교육 및 사회복지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기에 한국에서 사교육의 문제를 안고 있는 상업적인 목적의 학원이나 과외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셋째,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과 지역 아동의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우선적 지원체제를 들 수 있다. 교육 투자 우선 지역(ZEP)을 법적으로 지정, 선포하여 문화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과 가정의 아동에게 보다 많은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상당히 시사적이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도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등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천하는 일이 시급하다.

넷째, 여가활용과 생애개발 차원의 성격을 들 수 있다. 프랑스의 특기·적성교육은 국가의 지원 하에 이루어지지만, 교사와 학생에게 억지로 실시하도록 강요하고 감독하는 성격이 아닌, 각 학생이 자신의 여가와 생애개발을 흥미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성격을 나타낸다. 여름방학 및 6주마다 돌아오는 1~2주간의 카톨릭 단기바캉스, 수요일과 토요일 휴일 등 학교에 있지 않는 많은 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돕고 평생교육차원에서의 생애개발과 관련되어 있다. 학교 내부에서 급조된 프로그램이 아닌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지역의 자원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속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구성, 조직되어 발전되어 왔으며 학생들이 자신의 생애와 진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행복한 생을 주체적으로 가꾸는 차원에서 인식되고 건설하게 개발되어온 특징을 나타낸다.

4) 일본

일본은 특별활동 및 특기·적성교육 목표를 “바람직한 집단활동을 통해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개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집

단이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욱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자주적이며 실천적인 태도를 기른다. 이와 함께 인간으로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자각심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생활 개척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로 설정하고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 등 기본적인 도덕의식과 상화생활상의 규칙을 충분히 몸에 익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 도쿄 시부야구 교육위원회 사례

일본의 대부분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바오가후부 교육활동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학부모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학부모 중심의 임원회의가 1개월에 1번 정도 열리고 있는데, 학부모 회의에서 진로 지도 프로그램, 방과후 부 활동 등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학부모 회의는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가정통신을 통해 운영회를 홍보하고, 학생들의 교양 및 후생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관내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은 클럽활동과 부 활동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클럽활동은 지도교사가 주관하면서 주 1시간 씩 운영하고 있으나, 요즘 클럽활동을 방과후 부 활동은 활성화시키고 있다.

(2) 시부야구 쇼도 중학교 사례

이 학교의 진로지도는 1주일에 1회씩 실시하는 도덕 교육 활동과 특별활동 등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진로지도는 중학교 졸업이후에 장차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준비하는 교육으로, 쇼도 중학교는 특활시간을 활용(1년 35시간)하고 있다. 진로지도의 특징으로는 학생 자신을 중심으로 보고 주변의 인간관계로 점차 확대시켜 나가는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특기·적성교육에 주는 시사점】

첫째, 일본의 특기·적성교육은 특별활동에 속하는 정규 클럽활동 및 진로지도, 그리고 방과후 부활동이라는 세 가지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 5일제 수업의 운영에 활용하는 방

식으로 특기·적성교육의 골자가 변하고 있음은 주 5일제 수업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둘째, 일본의 방과 후 부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특기·적성교육활동은 학생들의 요구와 흥미를 그대로 반영하는 자발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특기·적성교육은 지역여건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특기·적성교육 그 자체가 학교와 가정을 연계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설도 존중되어 농어촌 지역 등에서 사교육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특기·적성교육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7. 先行研究 考察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특기·적성교육활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현준(1995)은 정규교육과정의 특별활동을 보완하는 방안의 하나로 방과 후 특별활동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찾기 위하여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조사, 분석하였다.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에 대한 연구’에서

첫째, 교사와 학부모는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야 하며,

둘째, 학교 실정이나, 지역성에 알맞은 영역부터 먼저 선정·조직 운영되어야 하며,

셋째, 교사·학부모들은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 지도교사 선정에서 교사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주길 바라고 지도교사에게는 적절한 수당을 지불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강사 초빙도 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유광기(1998)는 ‘상설특별활동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에서 학교에서 개설 운영한 상설특별활동이 사교육비 부담 해소에 기여를 하였으며, 활동 면에서 개인의 소질개발, 인원수의 적정성 여부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평균 85.0% 이상 높은 만족도를 나

타내고 있으나 시간 운영의 능률과 적정성에서는 만족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 효율적인 시간운영을 위하여 세밀한 계획 수립이 요망된다고 하였다. 또한 다양한 발표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상설특별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을 높였으나, 상설특별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자료 등은 아직 부족하며, 결과 발표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의 애로가 따른다고 하였다.

김정하(1996)는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중인 기관의 지역적 특성이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지역에 87.5%가 위치해 있고 저소득층이 많은 곳에 대부분 위치해 있어 특히 맞벌이 가정이 많고 열악한 주변환경 속에 학령기 아동이 방치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며 이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의 운영시의 어려움으로는 재정의 부족, 시설 및 기자재의 부족, 방과후 아동 지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부족, 자원봉사자 및 교사 채용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행정적·법적 제도의 마련이 요구된다 하였다.

서일옥(1997)은 경남 창원시내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의 실태조사'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2학년부터 시작해 6학년까지 주당 3일씩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상으로 지도받는 종목은 컴퓨터와 영어였고 희망도 가장 많다고 하였다. 아직은 시설과 장소가 부족하고 여건의 조성도 미비하지만 아동들에게 지능 및 특기신장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어 학교의 공교육적 기능과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비의 절감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귀희(1997)는 현행 교육과정상 정규수업만으로는 부족한 특별활동을 확보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개성과 창의력을 신장시키고 전인교육으로 진일보하기 위하여 진로지도 및 맞벌이 가정의 방과후 자녀관리를 위하여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사교육비의 절감 방안의 일환으로 학교에서의 특기·적성교육 (특기·적

성교육)의 필요성이 정당화되는 것이다. 또한 학교 밖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유입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의 장인 학교를 방과후에도 예·체능 및 특기신장 교육 등으로 이용하게 하는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가 특기·적성교육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들을 밝히는 연구와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기·적성교육활동을 위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들이 잘 제시되어 있었으나 제도나 교육 환경은 물론 교사, 아동, 학부모의 의식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 현재의 실정이나 여건에 맞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연구가 새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특기·적성교육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Ⅲ. 結果分析 및 解釋

1. 特技・適性教育에 대한 認識

1) 특기・적성교육의 필요성

<표 14> 특기・적성교육의 필요성

N(%)

구분	변인	꼭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모르겠다	계	
성별	남	21(37.5)	21(37.5)	12(21.4)	2(3.6)	56(100)	$\chi^2=9.0054^*$ df=3 p=0.0292
	여	54(21.7)	146(58.6)	42(16.9)	7(2.8)	249(100)	
직위	교사	55(22.9)	134(55.8)	42(17.5)	9(3.8)	240(100)	$\chi^2=4.4036$ df=3 p=0.2210
	부장교사	20(31.8)	31(49.2)	12(19.1)	0(0.0)	63(100)	
교육경력	5년 미만	9(15.0)	37(61.7)	10(16.6)	4(6.7)	60(100)	$\chi^2=13.3234$ df=9 p=0.1485
	5년 이상	4(17.4)	16(69.6)	3(13.0)	0(0.0)	23(100)	
	10년 이상	31(31.3)	47(47.5)	17(17.2)	4(4.0)	99(100)	
	20년 이상	31(25.2)	67(54.5)	24(19.5)	1(0.8)	123(100)	

* $p < .05$

위 <표 14>는 특기・적성교육 필요성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교사 80%, 남교사 75%가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성별에 따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별에서는 부장교사 81%, 교사 79%가 필요성을 비슷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장교사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력별에서는 5년 이상 87%, 20년 이상 80%, 10년 이상 79%, 5년 미만 77%가 5년 이상에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경력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의 특기・적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80%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교사들은 학교에서의 특기・적성교육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특기·적성교육이 필요한 까닭

<표 15> 특기·적성교육이 필요한 까닭

N(%)

구분	변인	학부모 사교육 비경감	취미·소 질 계발 및 특기 신장	인성 교육	맞벌이 부부를 위해	계	
성 별	남	18(32.7)	30(54.6)	5(9.1)	2(3.6)	55(100)	$\chi^2=1.6097$ df=3 p=0.6572
	여	98(39.8)	111(45.1)	26(10.6)	11(4.5)	246(100)	
직 위	교 사	94(39.7)	111(46.8)	25(10.6)	7(2.9)	237(100)	$\chi^2=3.4558$ df=3 p=0.3265
	부장 교사	22(35.5)	29(46.8)	6(9.7)	5(8.1)	62(100)	
교 육 경 력	5년 미만	18(31.0)	34(58.6)	5(8.6)	1(1.7)	58(100)	$\chi^2=6.3554$ df=9 p=0.7039
	5년 이상	10(45.5)	10(45.5)	2(9.1)	0(0.0)	22(100)	
	10년 이상	38(38.4)	45(45.5)	11(11.1)	5(5.1)	99(100)	
	20년 이상	50(40.9)	52(42.6)	13(10.7)	7(5.7)	122(100)	

위 <표 15>는 특기·적성교육이 필요한 까닭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교사 87%, 여교사 85%가 취미·소질 계발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이라고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직위별에서는 교사 87%, 부장교사 82%가 교사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직위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경력별에서는 취미·소질 계발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응답이 5년 이상 91%, 5년 미만 90%, 10년 이상 84%, 20년 이상 84%로 경력 10년 이하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경력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10% 정도는 인성 교육을 위해서 특기·적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3) 특기·적성교육의 교구 설비 현황

<표 16> 특기·적성교육의 교구·시설 구비 N(%)

구분	변인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부족하다	계	
성별	남	0(0.0)	22(39.3)	25(44.6)	9(16.1)	56(100)	$\chi^2=1.7663$ df=3 p=0.6223
	여	4(1.6)	81(32.5)	124(49.8)	40(16.1)	249(100)	
직위	교사	3(1.3)	84(35.0)	114(47.5)	39(16.3)	240(100)	$\chi^2=0.6365$ df=3 p=0.8880
	부장교사	1(1.5)	19(30.2)	33(52.4)	10(15.9)	63(100)	
교육경력	5년 미만	0(0.0)	17(28.3)	38(63.3)	5(8.3)	60(100)	$\chi^2=19.9027^*$ df=9 p=0.0185
	5년 이상	0(0.0)	10(43.5)	11(47.9)	2(8.7)	23(100)	
	10년 이상	1(1.0)	27(27.3)	56(56.6)	15(15.2)	99(100)	
	20년 이상	3(2.4)	49(39.8)	44(35.8)	27(21.9)	123(100)	

* p<.05

위 <표 16>는 특기·적성교육 운영에 필요한 교구 시설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교사 66%, 남교사 61%가 부족하다 고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직위별에서는 부장교사 68%, 교사 64%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부장교사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력별에서는 10년 이상 72%, 5년 미만 72%, 20년 이상 57%, 5년 이상 56%가 특기·적성교육 운영에 필요한 교구 시설에 대하여 부족하다고 응답함으로써 교육경력에 따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과 20년 이상에서는 보통이다 응답자가 많이 나타나 차이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많은 교사들이 특기·적성교육 운영에 필요한 교구 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 교구 시설확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특기·적성교육의 지도 내용과 방법

<표 17> 특기·적성교육의 지도 내용과 방법

N(%)

구분	변인	매우 만족 한다	대체로 만족 한다	보통 이다	불만 이다	계	
성 별	남	1(1.8)	20(35.7)	31(55.4)	4(7.1)	56(100)	$\chi^2=1.4566$ df=3 p=0.6923
	여	4(1.6)	86(34.5)	127(51.0)	32(12.9)	249(100)	
직 위	교사	4(1.7)	74(30.8)	132(55.0)	30(12.5)	240(100)	$\chi^2=6.2743$ df=3 p=0.0990
	부장교사	1(1.6)	30(47.6)	26(41.3)	6(9.5)	63(100)	
교육 경 력	5년 미만	0(0.0)	18(30.0)	38(63.3)	4(6.7)	60(100)	$\chi^2=10.7270$ df=9 p=0.2949
	5년 이상	0(0.0)	9(39.1)	13(56.5)	1(4.4)	23(100)	
	10년 이상	3(3.0)	33(33.3)	52(52.5)	11(11.1)	99(100)	
	20년 이상	2(1.6)	46(37.4)	55(44.7)	20(16.3)	123(100)	

위 <표 17>는 특기·적성교육의 지도 내용과 방법 대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교사 64%, 남교사 63%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직위별에서는 교사 64%, 부장교사 51%가 지도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력별에서는 5년 미만 70%, 10년 이상 64%, 20년 이상 61%, 5년 이상 61%가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경력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 60%이상의 교사들이 현재 학교에서 운영되는 특기·적성교육의 지도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기·적성교육 강사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특기·적성교육의 도움 여부

<표 18> 특기·적성교육의 도움 여부

N(%)

구분	변인	사교육 비용 경감	소질 적성 계발	바른 인성 교육	공교육 활성화 기여	계	
성 별	남 여	23(41.1) 111(44.8)	26(46.4) 97(39.1)	2(3.6) 17(6.9)	5(8.9) 23(9.3)	56(100) 248(100)	$\chi^2=1.5391$ df=3 p=0.6733
직 위	교 사 부장 교사	105(43.9) 29(46.0)	95(39.8) 27(42.9)	17(7.1) 1(1.6)	22(9.2) 6(9.5)	239(100) 63(100)	$\chi^2=2.2743$ df=3 p=0.4354
교 육 경 력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	21(35.0) 12(52.2) 42(42.4) 59(48.4)	30(50.0) 6(26.1) 42(42.4) 45(36.9)	4(6.7) 0(0.0) 7(7.1) 8(6.6)	5(8.3) 5(21.7) 8(8.1) 10(8.2)	60(100) 23(100) 99(100) 123(100)	$\chi^2=10.8589$ df=9 p=0.2855

위 <표 18>는 특기·적성교육 활동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교사 87%, 여교사 84%가 소질·적성 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남교사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별에서는 부장교사 89%, 교사 84%가 소질·적성 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장교사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경력별에서는 20년 이상 85%, 5년 미만 85%, 10년 이상 85%, 5년 이상 78%가 소질·적성 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5년 이상 경력에서 22%가 공교육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응답하여 다소 다른 결과가 나왔다.

교사들은 특기·적성교육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소질·적성계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6) 특기·적성교육의 사교육비 경감 여부

<표 19> 특기·적성교육의 사교육비 경감 여부 N(%)

구분	변인	매우 경감	조금 경감	경감되 고 있지 않다	부담이 늘었다	계	
성 별	남	9(16.1)	39(69.6)	7(12.5)	1(1.8)	56(100)	$\chi^2=0.6202$ df=3 p=0.8918
	여	33(13.3)	175(70.3)	38(15.3)	3(1.2)	249(100)	
직 위	교 사	30(12.5)	165(68.8)	43(17.9)	2(0.8)	240(100)	$\chi^2=10.6746^*$ df=3 p=0.0136
	부장 교사	11(17.5)	48(76.2)	2(3.2)	2(3.2)	63(100)	
교 육 경 력	5년 미만	7(11.7)	44(73.3)	9(15.0)	0(0.0)	60(100)	$\chi^2=9.2018$ df=9 p=0.4189
	5년 이상	0 (0.0)	20(86.9)	3(13.0)	0(0.0)	23(100)	
	10년 이상	13(13.1)	68(68.7)	17(17.2)	1(1.0)	99(100)	
	20년 이상	22(17.9)	82(66.7)	16(13.0)	3(2.4)	123(100)	

* p< .05

위 <표 19>는 특기·적성교육이 사교육비를 경감시켜 주느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교사 86%, 여교사 84%가 사교육비를 경감시켜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직위별에서는 부장교사 94%, 교사 81%가 특기·적성교육이 사교육비를 경감시켜 준다고 응답함으로써 직위에 따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력별에서는 5년 이상 87%, 5년 미만 85%, 20년 이상 85%, 10년 이상 82%가 사교육비를 경감시켜 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경력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기·적성교육이 사교육비를 경감시켜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학교에서의 특기·적성교육 활성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特技・適性教育 프로그램 運營 實態

1) 특기・적성교육의 적정 수강 인원

<표 20> 특기・적성교육의 적정 수강 인원 N(%)

구분	변인	6명 이하	6~10명	11~15명	16~20명	계	
성별	남	2(3.6)	21(37.5)	26(46.4)	7(12.5)	56(100)	$\chi^2=5.9850$ df=3 p=0.1123
	여	12(4.9)	121(48.9)	102(41.3)	12(4.9)	247(100)	
직위	교사	14(5.9)	122(51.3)	91(38.2)	11(4.6)	238(100)	$\chi^2=16.4446***$ df=3 p=0.0009
	부장 교사	0(0.0)	20(31.8)	35(55.6)	8(12.6)	63(100)	
교육경력	5년 미만	4(6.7)	34(56.7)	21(35.0)	1 (1.7)	60(100)	$\chi^2=15.9381$ df=9 p=0.0682
	5년 이상	0(0.0)	11(47.8)	12(52.2)	0 (0.0)	23(100)	
	10년 이상	3(3.1)	51(52.6)	38(39.2)	5 (5.2)	97(100)	
	20년 이상	7(5.7)	46(37.4)	57(46.3)	13(10.6)	123(100)	

*** p <.001

위 <표 20>은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부서별 적정 수강 인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교사 90%, 남교사 84%가 6~15명이 적정 수강 인원이라고 응답하였다. 여교사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직위별에서는 교사 90%, 부장교사 87%가 6~15명이 적정 수강 인원이라고 응답함으로써 직위에 따라 p<.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력별에서는 5년 이상 100%, 5년 미만 92%, 10년 이상 92%, 20년 이상 84%가 6~15명이 적정 수강 인원이라고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교육경력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경력이 적을수록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부서별 적정 수강 인원이 작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특기·적성교육의 주당 적정 수업 시수

<표 21> 특기·적성교육의 주당 적정 수업 시수 N(%)

구 분	변 인	1회 1시간	1회 2시간	2회 2시간	3회 3시간	계	
성 별	남	2 (3.6)	10(17.9)	31(55.3)	13(23.2)	56(100)	$\chi^2=7.8457^*$ df=3 p=0.0493
	여	26(10.4)	71(28.5)	119(47.8)	33(13.3)	249(100)	
직 위	교 사	23(9.6)	68(28.3)	114(47.5)	35(14.6)	240(100)	$\chi^2=2.6226$ df=3 p=0.4535
	부장 교사	4(6.4)	13(20.6)	35(55.6)	11(17.4)	63(100)	
교 육 경 력	5년 미만	8(13.3)	19(31.7)	27(45.0)	6(10.0)	60(100)	$\chi^2=9.0383$ df=9 p=0.4337
	5년 이상	2(8.7)	4(17.4)	15(65.2)	2 (8.7)	23(100)	
	10년 이상	7(7.1)	22(22.2)	54(54.6)	16(16.1)	99(100)	
	20년 이상	11(8.9)	36(29.3)	54(43.9)	22(17.9)	123(100)	

* p <.05

위 <표 21>은 특기·적성교육의 주당 적정 수업 시수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교사 55%, 여교사 48%가 2회 2시간이 주당 적정 수업 시수 라고 응답함으로써 성별에 따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별에서는 부장교사 56%, 교사 48%가 주당 적정 수업 시수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장 교사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경력별에서는 5년 이상 65%, 10년 이상 55%, 5년 미만 45%, 20년 이상 44%가 2회 2시간이 주당 적정 수업 시수 라고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교육경력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설문에서 주당 1회 2시간이 적정 수업 시수 라고 응답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 주당 수업 시수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주당 1회 2시간이나 2회 2시간으로 혼합하여 편성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특기·적성교육의 반 편성

<표 22> 특기·적성교육의 반 편성

N(%)

구 분	변 인	같은 학년 편성	저·중 · 고 편성	학년별 통합후 수준별	희망과 능력에 따라서	계	
성 별	남	12(21.4)	7(12.6)	26(46.4)	11(19.6)	56(100)	$\chi^2=0.6389$ df=3 p=0.8875
	여	57(22.9)	38(15.3)	102(40.9)	52(20.9)	249(100)	
직 위	교 사	53(22.1)	34(14.2)	104(43.3)	49(20.4)	240(100)	$\chi^2=0.9735$ df=3 p=0.8077
	부장 교사	16(25.4)	10(15.9)	23(36.5)	14(22.2)	63(100)	
교 육 경 력	5년 미만	8(13.3)	9(15.0)	28(46.7)	15(25.0)	60(100)	$\chi^2=6.9578$ df=9 p=0.6415
	5년 이상	5(21.7)	4(17.4)	8(34.8)	6(26.1)	23(100)	
	10년 이상	25(25.3)	11(11.1)	45(45.5)	18(18.1)	99(100)	
	20년 이상	31(25.2)	21(17.1)	47(38.2)	24(19.5)	123(100)	

위 <표 22>은 특기·적성교육의 반 편성 운영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교사 46%, 여교사 41%가 학년별 통합후 수준별로 반 편성을 하는 것이 좋다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위별에서는 교사 43%, 부장교사 37%가 학년별 통합후 수준별로 반 편성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교사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직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경력별에서는 5년 미만에서 47%, 10년 이상 46%, 20년 이상 38%, 5년 이상 35%가 학년별 통합 후 수준별로 반 편성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여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년 미만과 10년 이상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기·적성교육의 반 편성 운영은 같은 학년별로 프로그램별 학생들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반 편성을 하되 본인의 희망도 고려하여 편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특기·적성교육의 방학중 실시

<표 23> 특기·적성교육의 방학중 실시 여부 N(%)

구분	변인	계속 운영	별도 프로그램 운영	운영 하지 않는다	잘 모르 겠다	계	
성 별	남	19(33.9)	28(50.0)	9(16.1)	0(0.0)	56(100)	$\chi^2=4.7672$ df=3 p=0.1897
	여	73(29.3)	109(43.8)	51(20.5)	16(6.4)	249(100)	
직 위	교 사	73(30.4)	106(44.2)	46(19.2)	15(6.2)	240(100)	$\chi^2=2.4789$ df=3 p=0.4791
	부장 교사	18(28.6)	30(47.6)	14(22.2)	1(1.6)	63(100)	
교 육 경 력	5년 미만	15(25.0)	27(45.0)	12(20.0)	6(10.0)	60(100)	$\chi^2=8.7984$ df=9 p=0.4561
	5년 이상	9(39.1)	12(52.2)	2(8.7)	0(0.0)	23(100)	
	10년 이상	32(32.3)	41(41.4)	23(23.2)	3(3.1)	99(100)	
	20년 이상	36(29.3)	57(46.3)	23(18.7)	7(5.7)	123(100)	

위 <표 23>은 특기·적성교육의 방학 동안 운영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교사 90%, 여교사 73%가 방학동안에도 계속 같은 프로그램이나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남교사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별에서는 부장교사 76%, 교사 75%가 비슷하게 방학동안에도 특기·적성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교육경력별에서는 5년 이상 91%, 20년 이상 76%, 10년 이상 74%, 5년 미만 70%가 방학동안에도 특기·적성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함으로써 5년 이상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학동안에 특기·적성교육 운영은 방과후에 실시하는 현재의 특기·적성교육과 다른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교사들은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특기·적성교육의 인접 시설 활용

<표 24> 특기·적성교육의 인접 시설 활용

N(%)

구분	변인	활용하고 있다	보통이다	활용하지 않고 있다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계	
성별	남 여	2(3.6) 16(6.5)	15(26.8) 77(31.3)	27(48.2) 97(39.4)	12(21.4) 56(22.8)	56(100) 246(100)	$\chi^2=1.8567$ df=3 p=0.6027
직위	교사 부장 교사	14(5.9) 3(4.8)	69(29.1) 22(34.9)	99(41.8) 25(39.7)	55(23.2) 13(20.6)	237(100) 63(100)	$\chi^2=0.8662$ df=3 p=0.8336
교육경력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	4(6.8) 0(0.0) 6(6.1) 8(6.6)	19(32.2) 6(27.3) 31(31.3) 36(29.5)	27(45.8) 14(63.6) 35(35.4) 48(39.3)	9(15.2) 2(9.1) 27(27.2) 30(24.6)	59(100) 22(100) 99(100) 122(100)	$\chi^2=9.9366$ df=9 p=0.3556

위 <표 24>은 특기·적성교육의 인접 시설 활용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교사 96%, 여교사 94%가 인접시설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슷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직위별에서는 부장교사 95%, 교사 94%가 인접 시설 활용에 대하여 비슷하게 응답함으로써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력별에서는 5년 이상 100%, 10년 이상 94%, 20년 이상 93%, 5년 미만 93% 순으로 인접 시설 활용에 대하여 비슷하게 응답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경력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학교에서의 특기·적성교육에 인접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特技・適性教育 行政支援 實態

1) 특기・적성교육 현직 교사 강사료

<표 25> 특기・적성교육의 현직 교사 강사료 N(%)

구분	변인	외부 강사와 동등	현재 정도	현재 보다 적게	외부장 사보다 높게	계	
성 별	남 여	33(58.9) 159(64.1)	17(30.4) 67(27.0)	4(7.1) 9(3.6)	2(3.6) 13(5.3)	56(100) 248(100)	$\chi^2=1.9564$ df=3 p=0.5815
직 위	교 사 부장 교사	156(65.3) 34(53.9)	60(25.1) 24(38.1)	11(4.6) 2(3.2)	12(5.0) 3(4.8)	239(100) 63(100)	$\chi^2=4.2804$ df=3 p=0.2327
교 육 경 력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	48(80.0) 16(69.6) 64(65.3) 64(52.0)	10(16.6) 4(17.4) 26(26.5) 44(35.8)	1(1.7) 2(8.7) 6(6.2) 4(3.3)	1(1.7) 1(4.3) 2(2.0) 11(8.9)	60(100) 23(100) 98(100) 123(100)	$\chi^2=21.8750^{**}$ df=9 p=0.0093

** p < .01

위 <표 25>는 특기・적성교육의 현직 교사 강사료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교사 64%, 남교사 59%가 현직 교사 강사료에 대하여 외부강사와 같거나 높게 지불해야 한다고 비슷하게 응답하였다. 여교사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별에서는 교사 65%, 부장교사 54%가 현직 교사 강사료가 외부강사와 같거나 높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경력별에서는 5년 미만 82%, 5년 이상 74%, 10년 이상 67%, 20년 이상 61%가 현직 교사 강사료에 대하여 외부강사와 같거나 높게 지불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경력이 짧을수록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함으로써 교육경력에 따라 p<.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특기·적성교육의 정부 보조금 사용

<표 26> 특기·적성교육의 정부 보조금 사용 N(%)

구분	변인	프로그램 개발, 연구	자료 시설 확충	강사비 보조	실직자 극빈자 보조	계	
성별	남	10(17.9)	26(46.4)	9(16.1)	11(19.6)	56(100)	$\chi^2=6.7936$ df=3 p=0.0788
	여	26(12.0)	162(65.1)	24(9.6)	33(13.3)	249(100)	
직위	교사	33(13.8)	143(59.6)	28(11.6)	36(15.0)	240(100)	$\chi^2=1.6939$ df=3 p=0.6383
	부장교사	7(11.1)	43(68.3)	5(7.9)	8(12.7)	63(100)	
교육경력	5년 미만	12(20.0)	34(56.7)	8(13.3)	6(10.0)	60(100)	$\chi^2=7.6731$ df=9 p=0.0855
	5년 이상	6(26.1)	12(52.2)	4(17.4)	1 (4.3)	23(100)	
	10년 이상	7 (7.1)	68(68.7)	7 (7.1)	17(17.1)	99(100)	
	20년 이상	15(12.2)	74(60.2)	14(11.4)	20(16.2)	123(100)	

위 <표 26>은 특기·적성교육의 정부 보조금 사용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교사 65%, 남교사 46%가 정부 보조금에 대하여 자료 및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교사가 훨씬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별에서는 부장교사 68%, 교사 60%가 자료 및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장교사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경력별에서는 10년 이상 69%, 20년 이상 60%, 5년 미만 57%, 5년 이상 52% 순으로 정부 보조금에 대하여 자료 및 시설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학교 특기·적성교육에서 많은 교사들이 자료 및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부 재정 지원의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특기·적성교육에서 학교의 역할

<표 27> 특기·적성교육 학교의 역할 N(%)

구분	변인	더욱 중대	지금 적당	줄여야 한다	운영 하지 않는다	계	
성 별	남	16(28.6)	22(39.3)	12(21.4)	6(10.7)	56(100)	$\chi^2=1.4009$ df=3 p=0.7053
	여	64(25.9)	115(46.6)	40(16.2)	28(11.3)	247(100)	
직 위	교사	65(27.3)	104(43.7)	42(17.7)	27(11.3)	238(100)	$\chi^2=1.1398$ df=3 p=0.7675
	부장교사	14(22.2)	32(50.8)	10(15.9)	7(11.1)	63(100)	
교 육 경 력	5년 미만	20(33.3)	28(46.7)	8(13.3)	4(6.7)	60(100)	$\chi^2=9.6990$ df=9 p=0.3754
	5년 이상	6(26.1)	12(52.2)	3(13.0)	2(8.7)	23(100)	
	10년 이상	29(29.9)	35(36.1)	21(21.7)	12(12.3)	97(100)	
	20년 이상	25(20.3)	62(50.4)	20(16.3)	16(13.0)	123(100)	

위 <표 27>은 특기·적성교육에서 학교의 역할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교사 72%, 남교사 68%가 학교의 역할이 현재 정도이거나 더욱 중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직위별에서는 부장교사 73%, 교사 71%가 학교의 역할이 현재 정도이거나 더욱 중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장교사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력별에서는 5년 미만 80%, 5년 이상 78%, 20년 이상 71%, 10년 이상 66%가 학교의 역할이 현재 정도이거나 더욱 중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경력이 낮은 경우 학교의 역할 중대를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학교에서의 역할 중대 방안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4) 특기·적성교육의 업무 담당

<표 28> 특기·적성교육의 업무 담당 N(%)

구분	변인	특기·학교운영위원회 적성영위원 담당회학부 교사모위원	참여학생의 학부모 후원회	사무실 업무 보조원 채용	계	
성별	남 여	6(10.7) 36(14.5)	11(19.7) 37(14.9)	20(35.7) 74(29.9)	19(33.9) 101(40.7)	56(100) 248(100)
직위	교사 부장교사	31(12.9) 9(14.3)	39(16.3) 9(14.3)	71(29.7) 23(36.5)	98(41.1) 22(34.9)	239(100) 63(100)
교육경력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	7(11.7) 3(13.0) 12(12.2) 20(16.3)	8(13.3) 1(4.4) 19(19.4) 20(16.3)	18(30.0) 7(30.4) 31(31.6) 38(30.9)	27(45.0) 12(52.2) 36(36.8) 45(36.5)	60(100) 23(100) 99(100) 123(100)

위 <표 28>은 특기·적성교육의 학교 업무 담당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교사 71%, 남교사 70%가 보조원을 채용하거나 학부모 후원회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비슷하게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별에서는 교사 71%, 부장교사 71%가 업무보조원을 채용하거나 참여 학생의 학부모 후원회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육경력별에서는 5년 이상 83%, 5년 미만 75%, 10년 이상 68%, 20년 이상 67%가 업무보조원을 채용하거나 참여 학생의 학부모 후원회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력이 낮은 5년 이상과 5년 미만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고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의 학교 업무 담당을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의 업무 경감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5) 특기·적성교육 업무 처리

<표 29> 특기·적성교육 업무 처리에서 어려운 점 N(%)

구분	변인	부서 편성 교실 배정	수강료 수납 및 환불	강사의 선정 관리	지원금 운영 감사 대비	계	
성 별	남 여	23(41.1) 105(42.2)	13(23.2) 58(23.3)	12(21.4) 74(29.7)	8(14.3) 12(4.8)	56(100) 249(100)	$\chi^2=7.3755$ df=3 p=0.0608
직 위	교 사 부장 교사	107(44.6) 21(33.3)	52(21.6) 18(28.6)	69(28.8) 16(25.4)	12 (5.0) 8(12.7)	240(100) 63(100)	$\chi^2=7.2053$ df=3 p=0.0656
교 육 경 력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	24(40.0) 4(17.4) 45(45.5) 55(44.7)	17(28.4) 13(56.5) 15(15.2) 26(21.1)	17(28.3) 4(17.4) 32(32.2) 33(26.9)	2 (3.3) 2 (8.7) 7 (7.1) 9 (7.3)	60(100) 23(100) 99(100) 123(100)	$\chi^2=21.3937$ df=9 p=0.9120

위 <표 29>는 특기·적성교육의 업무처리에서 겪는 고충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교사 42%, 남교사 41%가 업무처리에서 겪는 고충에 대하여 부서 편성 및 교실 배정이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직위별에서는 교사 45%, 부장교사 33%가 업무처리에서 겪는 고충에 대하여 부서 편성 및 교실 배정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교사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력별에서는 10년 이상 46%, 20년 이상 45%, 5년 미만 40%, 5년 이상 17%가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교육경력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처리에서 겪는 고충에 대해서 부서 편성 및 교실 배정, 수강료 수납 및 환불, 강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고르게 응답하고 있어 모두 어렵고 힘들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특기·적성교육의 개선점

<표 30> 특기·적성교육의 개선점

N(%)

구분	변인	교육 시설 개선	다양한 프로 그램 운영	우수 강사 확보	예산 지원 확대	계	
성 별	남 여	11(19.6) 66(26.6)	19(33.9) 45(18.2)	21(37.6) 123(49.5)	5 (8.9) 14 (5.7)	56(100) 248(100)	$\chi^2=8.4814^*$ df=3 p=0.0370
직 위	교 사 부장 교사	63(26.4) 14(22.2)	49(20.5) 14(22.2)	112(46.9) 32(50.8)	15 (6.2) 3 (4.8)	239(100) 63(100)	$\chi^2=0.7589$ df=3 p=0.8593
교 육 경 력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	16(26.7) 9(39.1) 22(22.5) 30(24.4)	13(21.7) 4(17.4) 20(20.4) 27(21.9)	24(40.0) 9(39.1) 50(51.0) 61(49.6)	7(11.6) 1 (4.4) 6 (6.1) 5 (4.1)	60(100) 23(100) 98(100) 123(100)	$\chi^2=7.6731$ df=9 p=0.5674

* p <.05

위 <표 30>은 특기·적성교육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성별에 따른 개선점 조사에서는 남교사 우수 강사 확보가 38%,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34%로 나타났으며 여교사 우수 강사 확보가 50%, 교육 시설 개선이 27%로 응답됨으로써 성별에 따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별에서는 부장교사 51%, 교사 47%가 개선점에 대하여 우수강사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장 교사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경력별에서는 10년 이상 51%, 20년 이상 50%, 5년 미만 40%, 5년 이상 39%가 개선점에서 우수 강사 확보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교육경력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력이 낮은 충일수록 교육시설 개선에도 많이 응답하였다.

4. 特技・適性教育 講師 運營 實態

1) 특기・적성교육의 현직 교사 참여

<표 31> 특기・적성교육의 현직 교사 참여 여부 N(%)

구분	변인	좋다 참여 하겠다	좋다 참여는 싫다	좋지 않으나 참여는 하겠다	좋지 않으며 참여도 않겠다	계	
성 별	남 여	14(25.0) 36(14.5)	27(48.2) 140(56.5)	2(3.6) 11(4.4)	13(23.2) 61(24.6)	56(100) 248(100)	$\chi^2=3.7328$ df=3 p=0.2918
직 위	교사 부장 교사	37(15.5) 13(20.6)	129(53.9) 36(57.1)	11(4.7) 2(3.2)	62(25.9) 12(19.1)	239(100) 63(100)	$\chi^2=2.0946$ df=3 p=0.5530
교 육 경 력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	13(21.7) 7(31.8) 10(10.1) 20(16.3)	31(51.7) 11(50.0) 55(55.6) 70(56.9)	1(1.6) 0(0.0) 5(5.1) 7(5.7)	15(25.0) 4(18.2) 29(29.2) 26(21.1)	60(100) 22(100) 99(100) 123(100)	$\chi^2=11.3694$ df=9 p=0.2512

위 <표31>은 특기・적성교육의 현직 교사 참여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교사 73%, 여교사 71%가 현직 교사의 참여가 좋다고 나타났다. 남교사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위별에서는 부장교사 78%, 교사 69%가 현직교사의 참여에 대하여 긍정한다고 응답하였다. 부장교사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력별에서는 5년 이상 82%, 5년 미만 73%, 20년 이상 73%, 10년 이상 67%가 현직 교사의 참여가 좋다고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교육경력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특기·적성교육의 현직 교사 참여에 따른 문제

<표 32> 특기·적성교육의 현직 교사 참여에 대한 문제 N(%)

구분	변인	정규 수업에 소홀	업무 부담이 커짐	다른 교사와 위화감	학교 운영에 지장	계	
성	남 여	7(12.5)	35(62.5)	9(16.1)	5(8.9)	56(100)	$\chi^2=0.1119$ df=3 p=0.9904
		34(13.7)	157(63.1)	38(15.2)	20(8.0)	249(100)	
직 위	교사 부장 교사	34(14.2)	149(62.1)	38(15.8)	19(7.9)	240(100)	$\chi^2=1.2144$ df=3 p=0.7496
		6(9.5)	42(66.7)	9(14.3)	6(9.5)	63(100)	
교육 경 력	5년 미만	9(15.0)	39(65.0)	9(15.0)	3(5.0)	60(100)	$\chi^2=3.6108$ df=9 p=0.9351
	5년 이상	4(17.4)	14(60.9)	3(13.0)	2(8.7)	23(100)	
	10년 이상	16(16.2)	60(60.6)	15(15.1)	8(8.1)	99(100)	
	20년 이상	12(9.8)	79(64.2)	20(16.2)	12(9.8)	123(100)	

위 <표 32>는 특기·적성교육의 현직 교사 참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교사와 남교사 똑같이 63%가 현직 교사 참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업무부담의 증가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별에서는 부장교사 68%, 교사 62%가 업무부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장 교사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장교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부장교사가 상대적으로 학교에서의 업무부담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교육경력별에서는 5년 미만에서는 65%, 20년 이상에서는 64%, 5년 이상에서는 61%, 10년 이상에서는 61%가 조금씩 차이 나게 응답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교육경력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특기·적성교육 운영에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특기·적성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현직 교사에게 학교 업무분장에서 배려가 있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IV. 要約, 結論 및 提言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추출하고 개선점을 모색해 봄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특기·적성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수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자료는 통계처리를 위해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을 이용하여 교사의 각 배경변인별로 백분율과 χ^2 검증을 실시하였고, 집단간의 차이는 $P<.05$, $P<.01$, $P<.001$ 수준에서 유의도를 검증하였으며 이에 대한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要約

1)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인식은 특기·적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특기·적성교육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특기·적성교육이 필요한 까닭은 소질·적성 계발,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배경변인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특기·적성교육 운영에 필요한 교구 시설은 여교사 66%, 남교사 61%로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이 나타나 교구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이나 직위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교육 경력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기·적성교육의 지도 내용과 방법에 대한 의견에서 60%이상이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기·적성교육 강사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분석되며 배경변인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특기·적성교육의 부서별 적정 수강 인원은 6~15명을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주당 적정 수업 시간 에서는 배경변인에 관계없이 2회 2시간, 1회 2시간 순서로 응답하여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주당 1회 2시간이나 2회 2시간으로 혼합하여 편성 운영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적성교육의 반 편성 운영은 같은 학년별로 프로그램별 학생들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반 편성을 하되 본인의 희망도 고려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선호하였고, 방학 동안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의 특기·적성교육과 다른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적성교육의 인접 시설 활용은 배경변인에 관계없이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슷하게 응답하고 있어 앞으로 학교에서의 특기·적성교육에 인접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특기·적성교육 행정지원에서 특기·적성교육의 현직 교사 강사료는 외부강사와 같거나 높게 지불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정부 보조금 사용은 60%가 넘는 많은 교사들이 자료 및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학교별 연간 300만원에 불과한 현재 정부 재정 지원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적성교육의 학교 업무 담당은 업무 보조원을 채용하거나 참여 학생의 학부모 후원회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업무처리에서 겪는 고충에 대해서는 부서 편성 및 교실 배정, 수강료 수납 및 환불의 어려움의 순서로 응답함으로써 교사의 업무 경감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적성교육의 개선점 우선 순위는 우수 강사 확보, 교육시설 개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직위별과 교육경력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특기·적성교육 강사운영에서 특기·적성교육의 현직 교사 참여에 대해서는 남교사 73%, 여교사 71%가 현직 교사의 참여가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배경 변인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교사 참여에 따른 문제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특기·적성교육에 강사로 활동하는 교사에게는 학교 업무분장에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2. 結論

첫째, 개인의 특기 신장과 소질 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인성 교육의 강화, 공교육 신뢰회복을 위해서 정규 교과, 특별활동, 재량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과 아울러 앞으로 학교에서의 특기·적성 교육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어야 하며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교원의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교사의 의식 개혁 연수가 학교 단위에서 계속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개성이 다르고 능력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프로그램을 수준별로 편성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주도록 하고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소인수의 수준별 다단계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한다. 또한 수요가 적어 단위 학교에서 설치·운영이 어려운 프로그램은 강사, 시설, 학습자료 등을 공동 활용하고 지역교육청 주관 또는 인근 학교 연합, 지방자치단체나 청소년 단체 등과 연계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재정적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사설 교육기관의 교외 교육활동을 교내로 끌어들이려면 사설 교육기관보다 우수한 시설, 기자재, 교구 확보가 필수적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설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범 국가 차원에서의 재정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특기·적성교육 수요조사 분석, 프로그램 개설, 수준별 조직, 경비책정, 시간표 운영 및 조정, 인원 수시 증감에 따른 처리, 강사 확보, 결과보고 등 계획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업무량이 늘어난 데 대한 담당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특기·적성교육에 따른 전담 교사 또는 전담요원 확보가 필요하며, 수강료 고지 및 강사료 지급 등에 대한 서무실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현직 교사의 지도는 인성교육 강화 및 생활지도의 용이함뿐만 아니라 정규 교과와의 연계교육이 이루어져 학습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발달 단계나 지역적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특

기와 재능이 있는 그 학교에 재직중인 현직 교사를 외부강사와 같은 강사료 지급, 업무 경감 등의 유인책을 강구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提言

1) 외부강사의 강사료 및 현직교사의 교육활동비는 지역과 학교 실정, 프로그램의 특성, 수업 시간 수, 강사의 질,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2) 특기·적성교육 운영에 대한 지나친 과열로 학교의 학원화 및 교사의 업무 부담 과중으로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행정 당국이나 학교에서는 수업 이외의 업무경감 및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 등 행정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강구되어야 한다

3) 학교 시설이나 학습자료 구비에 따른 많은 예산 소요로 인해 프로그램의 개설이 힘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시설 기관에서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參考文獻

- 교육개혁위원회, 「교육개혁의 추진 방향」, 서울시 교육청, 1995.
- _____, 「제 5차 대통령보고서 사교육비 경감 방안」, 1997.
- 교육부, 「초등학교 특별활동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0.
- _____, 「교육개혁 추진 홍보 자료집(Ⅱ)」, 1996.
- _____,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1999.
- _____, 「적성과 소질을 살려주는 교육」, 1999.
- _____,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Ⅱ), 특별시 인쇄공업협동조합」, 1998.
- _____, 「특기·적성교육활동 사례별 운영지침」, 1999.
- _____, 「학교운영위원회 길라잡이」, 1999.
- 교육학 사전편찬 위원회, 「교육학 대사전」, 서울 : 대한교육연합회, 1965.
- 김귀희, “초등학교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의 문제점과 운영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김명례, “초등학교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에 대한 교사와 관리자의 관심도 연구”, 이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김선미, “학령기 아동 방과후 프로그램 모형정립”,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김정하, “방과후아동지도 프로그램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숭실대 교육대학원, 1996.
- 김재인, 「초등학교에서의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아동연구회, 1996.
- 박한숙외 2인, 「초등 특별활동 운영론」, 양서원, 2000.
- 서영숙외 2인, 「프로젝트중심 방과후 아동지도」, 양서원, 1996.
-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서울교육」, 가을호, 1998.

- 서울특별시 교육 과학연구원, 「계발활동 지도자료」, 2000.
- _____, 「서울 교육」, 가을호, 2000.
- _____, 「교육논문」, 1997.
- _____, 「교육논문」, 2000.
- 서울특별시 교육청, 「방과후 특별활동 이렇게 운영해보세요」, 2001.
- _____, 「주요 업무계획」, 2001.
- _____, 「초등특별활동 부장연수자료」, 2001, 4.
- _____,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지침」, 2000.
- 서일옥,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활동 실태조사」, 초등특별 연구교사
연구보고서, 1999.
- 유광기, 「상설특별활동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 교
육 행정분과, 1998.
- 이재연, 「방과후 아동보호 프로그램개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1995.
- 이현준, “초등학교 방과후 특별활동 운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
문, 연세대 교육대학원, 1995.
- 전하찬, 「학교 좋은 학교를 위해서 올려야 한다」, 집문당, 1998,
p.105~107.
- 최기웅,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고대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한국여성개발원,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총론」, 서울 : 교육과학
사, 1997.
- 한국열린교육연구회, 「열린 특별활동」, 교육과학사, 1999.
- 한금숙, “특기·적성교육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 대학교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ABSTRACT

A Study on the Operational Realities of Speciality/Aptitude Education Activity in Elementary School and Its Improvement

Ji, Cheong-hwan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ore effective speciality/aptitude education by extracting the problem through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realities of speciality/aptitude education implemented in elementary school and probing its improvements.

Data from the questionnaire research were statistically treated using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and percentage and chi-square test were conducted by background factor. An attempt was made to test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at the levels of $P<.05$, $P<.01$ and $P<.001$.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drawn: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dividual speciality and talents, alleviate private educational expenses, reinforce human-nature education and restore a trust in public

education. For this purpose, the role of speciality/aptitude education in school should be further increased in the future as well as the effective operation of regular texts, special activity and discretionary activity. In-service training to reform teachers' thoughtway should continue to be conducted at the school unit in order to induce them to have a positive thinking of and take an active part in the need for speciality/aptitude education activity.

Second, the multi-level program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for a small number of students by forming the program in levels, giving them a wide range of choice and making individualized education possible since students differ in personality and ability. It is necessary to make joint use of instructors, facilities, learning materials and the like in the program difficult to be established and operated at the unit school due to low demand and to operate them in linkage with local educational agencies, neighboring school unions, local authorities and youth organizations and the like.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financial support further. And it is necessary to secure more excellent facilities, equipment and materials, teaching materials than those of the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in order to reduce private expenses and introduce the extra-curricular educational activity

of the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into public education. Financial support should be innovatively expanded at the nationwide level of alleviating private educational expenses in order to open diverse programs to meet students' and their parents' needs and improve its qualitative level.

Fourth,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the workload of teachers in charge in relation to the increase of their workload ranging from planning to operation such as research and analysis of speciality/aptitude education, the opening of programs, their organization by level, the setting of expenses, timetable operation and coordination, treatment of occasional increase in the number of persons, the securing of instructors, the reporting of results and the like.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departmental teacher or departmental personnel relating to speciality/aptitude education and to reinforce active support of the general-affairs room for notice of instructional charges and lecturer' fees and the like.

Fifth, incumbent teachers' guidance can not only reinforce human-nature education and facilitate guidance but contribute to the learning effect through education linked with regular textbooks. It is necessary to make active use of incumbent teachers of speciality and talent familiar with students' developmental stage and local characteristics by considering

the incentives such as payment of the lecturer's fee equivalent to that of the outside instructor, the alleviation of workload and the like.

<附錄>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 운영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교사 설문지)

본 설문지는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 운영 실태와 개선점”에 관한 설문 조사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의 실태에 대해 선생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연구자료로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 12.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지 청 환

I. 기초조사 (표기방법 : 해당되는 곳에 √표)

1. 성 별 : () ① 남 () ② 여

2. 직 위 : () ① 교사 () ② 부장교사

3. 교육경력 :

() ① 5년 미만

() ② 5년 이상

() ③ 10년 이상

() ④ 20년 이상

II. 설문지 조사 (표기방법 : 해당되는 곳에 √표)

1.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꼭 필요하다. ☐ ② 조금 필요하다.
☐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④ 잘 모르겠다.
2. 특기·적성교육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 ② 소질 계발 및 특기·신장
☐ ③ 인성 교육 ☐ ④ 맞벌이 부부를 위해
3.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에 필요한 교구·시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충분하다. ☐ ② 보통이다.
☐ ③ 부족하다. ☐ ④ 매우 부족하다.
4. 특기·적성교육활동의 지도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대체로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불만이다.
5.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
☐ ② 아동의 특기·신장 및 소질 계발에 도움이 된다.
☐ ③ 바른 인성교육에 도움을 준다.
☐ ④ 공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6. 특기·적성교육활동이 사교육비를 경감시켜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경감시켜 주고 있다. ☐ ② 조금 경감되고 있다.
☐ ③ 경감되고 있지 않다. ☐ ④ 부담이 늘어났다.
7. 특기·적성교육활동에 적당한 인원수는 몇 명 정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6명 이하 ☐ ② 6~10명
☐ ③ 11~15명 ☐ ④ 16~20명
8. 특기·적성교육활동은 주당 몇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회 1시간 ☐ ② 1회 2시간
☐ ③ 2회 2시간 ☐ ④ 3회 3시간
9. 특기·적성교육활동 반 편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같은 학년끼리 편성한다.
☐ ② 저·중·고학년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 ③ 학년별로 통합하여 다시 수준별로 나눈다.
☐ ④ 학년 없이 희망과 능력에 따라 나눈다.
10. 특기·적성교육활동을 방학중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① 계속 운영한다. ☐ ②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③ 운영하지 않는다. ☐ ④ 잘 모르겠다.
11. 특기·적성교육 활동은 인접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 ① 잘 활용하고 있다. ☐ ② 보통이다
☐ ③ 잘 활용하지 않고 있다. ☐ ④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12. 특기·적성교육활동에 현직교사가 참여할 경우 강사료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현직교사 월 8시간 20만원 정도, 외부강사 월 8시간 40만원 정도)
- () ① 외부강사와 동등 () ② 현재 정도
- () ③ 현재보다 적게 () ④ 외부 강사 보다 높게
13. 특기·적성교육활동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중 어디에 쓰이는 것이 좋겠습니까?
- () ① 프로그램 개발 연구 () ② 자료 및 시설 확충
- () ③ 강사비 보조 () ④ 실직자, 극빈자 자녀 보조
14. 앞으로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학교의 역할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더욱 증대되어야 한다. () ② 지금정도가 적당하다.
- () ③ 줄여야 한다. () ④ 운영하지 말아야 한다.
15. 특기·적성교육활동의 실시로 학교업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제반업무를 누가 담당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특기·적성 업무 담당 교사 () ②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 () ③ 참여학생 학부모 후원회 () ④ 사무실이나 보조원 채용
16. 특기·적성교육활동 업무처리에서 겪는 고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부서 편성 및 교실배정 () ② 수강료 징수 및 환불
- () ③ 강사 선정 관리 () ④ 지원금의 운영 및 감사

17.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 가지 골라 주십시오.

- () ① 교육시설을 개선한다.
- () ②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 () ③ 우수 강사를 확보하여 질 높은 지도를 한다.
- () ④ 정보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18. 특기·적성교육활동에 현직교사가 지도교사로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좋다고 생각하며 나도 적극 참여하고 싶다.
- () ② 좋다고 생각하나 참여하고 싶지는 않다.
- () ③ 좋지 않다고 생각하나 참여는 하겠다.
- () ④ 좋지 않다고 생각하며 참여하지 않겠다.

19. **현직교사의 특기·적성교육참여시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정규수업에 소홀해 질 수 있다.
- () ② 업무부담이 매우 커진다.
- () ③ 다른 교사와 위화감이 생긴다.
- () ④ 학교운영에 지장을 준다.

20.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에 대한 건의 사항이나 바램을 말씀해 주십시오.

--